

홍길동전 (洪吉童傳)

(경판 24장본)

신 ○ 산 풀이

화설(話說)¹⁾ 조선국 세종조 시절(時節)의 한 재상(宰相)²⁾이 있으니, 성(姓)은 홍(洪)이오, 명은 모(某)³⁾이라. 대대(代代) 명문거족(名門巨族)⁴⁾으로 소년등과(少年登科)⁵⁾하여 벼슬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매, 물망(物望)⁶⁾이 조야(朝野)⁷⁾의 으뜸이요, 충효(忠孝) 겸비(兼備)하기로 이름이 일국(一國)의 진동하더라.

일찍 두 아들을 두었으니, 일자(一子)⁸⁾는 이름이 인형(仁顯)⁹⁾이니 정실(正室)¹⁰⁾ 유씨(兪氏) 소생(所生)¹¹⁾이요, 일자는 이름이 길동(吉童)이니 시비(侍婢)¹²⁾ 춘섬(春暹)의 소생이라.

선시(先時)¹³⁾에 공(公)¹⁴⁾이 길동을 낳을 때에 일몽(一夢)¹⁵⁾을 얻으니, 문득 뇌정벽력(雷霆霹靂)¹⁶⁾이 진동하며 청룡(靑龍)이 수염을 거사리고¹⁷⁾ 공에게 향하여 달려들거늘, 놀라 깨달으니¹⁸⁾ 일장춘몽(一場春夢)¹⁹⁾이라.

심중(心中)에 대희(大喜)하여 생각하되,

‘내 이제 용몽(龍夢)을 얻었으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으리라.’

하고, 즉시 내당(內堂)²⁰⁾으로 들어가니, 부인 유씨 일어나 맞거늘, 공이 혼연(欣然)²¹⁾히 그 옥수(玉手)를 이끌어 정(精)²²⁾히 친압(親狎)²³⁾고자 하거늘, 부인이 정색(正色)²⁴⁾ 왈, “상공(相公)²⁵⁾이 체위(體位)²⁶⁾ 존중(尊重)²⁷⁾하시거늘, 연소경박자(年少輕薄子)²⁸⁾의 비루(鄙陋)²⁹⁾함을 행(行)하고자 하시니, 첩(妾)은 봉행(奉行)³⁰⁾치 아니하리로소이다.”

하고, 언파(言罷)³¹⁾에 손을 떨치고 나가거늘, 공이 가장 무류(無謬)³²⁾하여 분기(憤氣)를 참지 못하고 외당(外堂)³³⁾에 나와 부인의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더니, 마침 시비 춘섬이 차(茶)를 올리거늘, 그 고요함을 인하여 춘섬을 이끌고 협실(夾室)³⁴⁾에 들어가 정히 친압하니, 이때 춘섬의 나이 십팔이라.

한번 몸을 허(許)한 후로 문외(門外)에 나지 아니하고 타인을 취할 뜻이 없으니, 공이 기특히 여겨 인하여 잉첩(媵妾)³⁵⁾을 삼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胎氣)³⁶⁾ 있어 십 삭(朔)

1)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말.

2) 조선조 때 2품 이상의 벼슬.

3) 아무개.

4) 이름난 가문과 크게 번창한 집안.

5) 나이 어려서 과거에 급제함.

6)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명망.

7) 조정과 민간.

8) 한 아들.

9) 여기에서 이름을 포함한 고유명사는 홍길동전의 한문필사본인 위도왕전(韋島王傳)을 따름.

10) 본 부인.

11)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

12) 가까이서 모시는 여자 종.

13) 이전에

14) 홍판서.

15) 한 꿈.

16) 격렬한 우레와 벼락.

17) 긴 것을 힘 있게 빙빙 돌려서 포개어지게 함.

18) 깨어나니.

19) 한바탕의 봄꿈.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

20) 안방.

21) 기쁜 마음으로.

22) 거칠지 않고 매우 곱게

23) 아주 가까이 함. 여기서는 육체적인 관계.

24) 얼굴에 엄격한 빛을 나타냄.

25) 재상.

26) 어떤 일을 할 때의 몸 위치나 자세.

27) 높이어 귀중하게 여김.

28) 어린애처럼 가볍게 행동함.

29) 행동이나 성질이 고상하지 못하고 더러움.

30) 높은 분의 뜻을 받들어 행함.

31) 말을 마침.

32) 겹연쩍고 부끄러움.

33) 사랑방.

34) 곁방.

35) 시녀로 있다가 주인 남자를 모시게 된 첩.

36) 아이를 밴 낱새.

만에 일개(一個) 옥동(玉童)¹⁾을 생(生)하니, 기골(奇骨)²⁾이 비범(非凡)하여 짐짓 영웅(英雄) 호걸(豪傑)의 기상(氣像)이라.

공이 일변(一邊)³⁾ 기뻐하나 부인에게 나지 못함을 한(恨)하더라.

길동이 점점 자라 팔 세 되매, 총명(聰明)이 과인(過人)⁴⁾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하니, 공이 더욱 애중(愛重)⁵⁾하나 근본 천생(賤生)이라.

길동이 매양(每樣) 호부호형(呼父呼兄)⁶⁾하면 문득 꾸짖어 못하게 하니, 길동이 십 세 넘도록 감히 부형(父兄)⁷⁾을 부르지 못하고, 비복(婢僕)⁸⁾ 등이 천대(賤待)⁹⁾함을 각골통한(刻骨痛恨)¹⁰⁾하여 심사(心事)를 정치 못하더니, 추구월 망간(望間)¹¹⁾을 당하매, 명월(明月)은 조요(照耀)¹²⁾하고 청풍(淸風)은 소슬(蕭瑟)¹³⁾하여 사람의 심회(心懷)¹⁴⁾를 돕는지라.

길동이 서당(書堂)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서안(書案)¹⁵⁾을 밀치고 탄왈(嘆曰)¹⁶⁾,

“대장부가 세상에 나매, 공맹(孔孟)¹⁷⁾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兵法)¹⁸⁾을 외워 대장인(大將印)¹⁹⁾을 요하(腰下)²⁰⁾에 비껴차고 동정서벌(東征西伐)²¹⁾하여, 국가에 대공(大功)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萬代)에 빛냄이 장부의 쾌사(快事)²²⁾이라. 나는 어찌하여 일신(一身)²³⁾이 적막하고, 부형이 있으되, 호부호형을 못 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어찌 통한(痛恨)치 않으리오.”

하고, 말을 마치며 뜰에 내려 검술(劍術)을 공부하더니, 마침 공이 또한 월색(月色)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徘徊)함을 보고 즉시 불러 문왈(問曰)²⁴⁾,

“네 무슨 흥(興)이 있어 야심(夜深)²⁵⁾토록 잠을 자지 아니하느냐?”

길동이 공경(恭敬) 대왈(對曰)²⁶⁾,

“소인(小人)²⁷⁾이 마침 월색을 사랑함이거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내시매 오직 사람이 귀하오나, 소인에게 이르러는 귀하움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이까?”

공이 그 말을 짐작하나, 짐짓 책왈(責曰)²⁸⁾, “네 무슨 말인고?”

길동이 재배(再拜)²⁹⁾ 고왈(告曰)³⁰⁾,

“소인이 평생 서러운 바는, 대감 정기(精氣)³¹⁾로 당당한 남자가 되었사오매, 부생모육지은(父生母鞠之恩)³²⁾이 깊삽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이까?”

하고, 눈물을 흘려 단삼(單衫)³³⁾을 적시거늘, 공이 청파(淸罷)³⁴⁾에 비록 측은(惻隱)하나, 만일 그 뜻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放恣)³⁵⁾할까 저어³⁶⁾, 크게 꾸짖어 왈,

1) 옥동자.

2) 남다른 기풍이 있어 보이는 골격.

3) 한편으로.

4) 능력이나 재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5)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김.

6)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름.

7) 아버지와 형.

8) 여자 종과 남자 종.

9) 업신여겨 푸대접함.

10) 뼈에 사무치게 원통해 하고 한스러워 함.

11) 음력 보름께.

12) 밝게 비쳐서 빛남.

13) 으스스하고 쓸쓸함.

14)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15) 책상.

16) 탄식하며 이르기를.

17) 공자와 맹자.

18)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

19) 대장임을 나타내기 위해 차고 다니던 도장.

20) 허리춤.

21) 여러 나라를 이리저리 정벌함.

22) 유쾌한 일이라.

23) 자기 한 몸.

24) 묻기를.

25) 밤이 깊음.

26) 답하기를.

27) 윗사람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28) 책망하기를.

29) 두 번 절함.

30) 고하기를.

31) 생명의 원천이 되는 원기.

32) 부모가 낳아 길러 주신 은혜.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

33) 홀으로 된 상의.

34) 듣기를 마침.

35) 꺼리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짐.

“재상가(宰相家)¹⁾ 천비(賤婢)²⁾ 소생(所生)이 비단 너뿐이 아니거든, 네 어찌 방자함이 이 같으뇨? 차후(此後)³⁾ 다시 이런 말이 있으면, 안전(眼前)에 용납지 못하리라.”

하니, 길동이 감히 일언(一言)⁴⁾을 고(告)치 못하고, 다만 복지유체(伏地流涕)⁵⁾뿐이라. 공이 명하여 물러가라 하거늘, 길동이 침소(寢所)로 돌아와 슬퍼함을 마지아니하더라.

길동이 본디 재기(才氣)⁶⁾ 과인하고, 도량(度量)⁷⁾이 활달한지라,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일일(一日)은 길동이 어미 침소의 가 울며 고왈,

“소자(小子)⁸⁾가 모친으로 더불어 전생(前生) 연분(緣分)⁹⁾이 중하여 금세(今世)의 모자가 되오니 은혜 망극하온지라.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奇薄)¹⁰⁾하여 천한 몸이 되오니 품은 한이 깊사온지라. 장부가 세상의 처(處)하매 남의 천대(賤待) 받음이 불가(不可)하온지라. 소자가 자연 기운을 억제치 못하여 모친 슬하(膝下)를 떠나려 하오니, 복망(伏望)¹¹⁾ 모친은 소자를 염려치 마시고 귀체(貴體)¹²⁾를保重(保重)하소서.”

그 어미 청파에 대경(大驚)¹³⁾ 왈,

“재상가 천생(賤生)¹⁴⁾이 너뿐이 아니거든, 어찌 협(狹)¹⁵⁾한 마음을 발(發)하여 어미 간장(肝腸)을 살으나뇨?”

길동이 대왈,

36) 두려워.

1) 재상의 집.

2) 신분이 천한 여자 중.

3) 이 뒤로

4) 한마디 말.

5)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림.

6) 재주가 있는 기질.

7)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

8)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

9) 하늘에서 배운 인연.

10)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음.

11) 엎드려 바라건대.

12) 사람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

13) 크게 놀람.

14)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15) 좁은.

“옛날 장충(張忠)¹⁶⁾의 아들 길산(吉山)¹⁷⁾은 천생(賤生)이로되, 십삼 세의 그 어미를 이별하고 운봉산(雲峯山)에 들어가 도를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後世)의 유전(流傳)¹⁸⁾하였으니, 소자가 그를 효측(效則)¹⁹⁾하여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모친은 안심하사 후일을 기다리소서. 근간(近間)²⁰⁾ 곡산모(谷山母)의 행색을 보니, 상공의 총(寵)²¹⁾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아는지라, 큰 화를 입을 까 하옵나니, 모친은 소자가 나감을 염려치 마소서.”

하니, 그 어미 또한 슬퍼하더라.

원래 곡산모는 본디 곡산(谷山)²²⁾ 기생으로 상공의 총첩(寵妾)²³⁾이 되었으니, 이름은 초란(楚蘭)이라.

가장 교만(驕慢) 방자하여 제 심중(心中)에 불합(不合)²⁴⁾하면 공에게 참소(讒訴)²⁵⁾하니, 이러므로 가중(家中) 폐단(弊端)이 무수한 중, 저는 아들이 없고 춘섬은 길동을 낳아 상공이 매양 귀히 여김을 심중의 앙앙(怏怏)²⁶⁾하여 없이함을 도모(圖謀)²⁷⁾하더니, 일일은 흉계(凶計)를 생각하고 무녀(巫女)²⁸⁾를 청(請)하여 왈,

“나의 일신을 평안케 함은 이 곳 길동을 없애기에 있는지라. 만일 나의 소원을 이루면 그 은혜를 후히 갚으리라.”

하니, 무녀가 듣고 기뻐 대왈,

“지금 흥인문(興仁門)²⁹⁾ 밖에 일등 관상녀

16) 미상.

17) 장길산(張吉山). 17세기 말 군도(群盜)의 대장.

18) 세상에 널리 퍼짐.

19) 본받음.

20) 요사이

21)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22) 황해도 곡산군(谷山郡).

23) 극진한 사랑을 받는 첩.

24)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25)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해바침.

26) 불평과 분노로 마음이 괴로움.

27)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포함.

28) 여자 무당.

29) 지금의 동대문.

(觀相女)¹⁾가 있으니, 사람의 상(相)²⁾을 한번 보면 전후 길흉(吉凶)을 판단하느니, 이 사람을 청하여 소원을 자세히 이르고, 상공께 천거(薦舉)³⁾하여 전후사(前後事)를 본 듯이 고하면, 상공이 필연 대혹(大惑)⁴⁾하사 그 아이를 없이 하고자 하시리니, 그때를 타 여차여차하면 어찌 묘계(妙計) 아니리이까?”

초란이 대희(大喜)하여 먼저 은자(銀子)⁵⁾ 오십 냇을 주며 상자(相子)⁶⁾를 청하여 오라 하니, 무녀가 하직하고 가니라.

이튿날 공이 내당에 들어와, 부인⁷⁾으로 더 붙어 길동의 비범함을 일컬으며 다만 천생임을 한탄하고 정히 말씀하더니, 문득 한 여자가 들어와 당하(堂下)⁸⁾에 문안(問安)하거늘, 공이 께이 여겨 문왈,

“그대는 어떠한 여자이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

그 여자가 왈,

“소인은 관상(觀相)하기로 일삼더니, 마침 상공 문하(門下)에 이르렀나이다.”

공이 차언(此言)⁹⁾을 듣고 길동의 내사(來事)¹⁰⁾를 알고자 하여 즉시 불러 뵈니, 상녀(相女)¹¹⁾가 이윽히 보다가 놀라며 왈,

“이 공자(公子)¹²⁾의 상을 보니 천고(千古) 영웅이요, 일대(一代) 호걸이로되, 다만 지체¹³⁾ 부족하오니 다른 염려는 없을까 하나이다.”

하고, 말을 내고자 하다가 주저하거늘, 공과 부인이 가장 께이 여겨 왈,

“무슨 말을 바른대로 이르라.”

상녀가 마지 못하여 좌우(左右)¹⁴⁾를 물리치고 왈,

“공자의 상을 보온즉, 흉중(胸中)¹⁵⁾의 조화가 무궁하고 미간(眉間)에 산천 정기 영룡(玲瓏)하오니 짐짓 왕후(王侯)¹⁶⁾의 기상이라, 장성하면 장차 멸문지화(滅門之禍)¹⁷⁾를 당하오리니 상공은 살피소서.”

공이 청과에 경아(驚訝)¹⁸⁾하여 묵묵반향(默默半餉)¹⁹⁾에 마음을 정하고 왈,

“사람의 팔자는 도망키 어렵거니와, 너는 이런 말을 누설(漏泄)²⁰⁾치 말라.”

당부하고, 약간 은자를 주어 보내니라.

차후로 공이 길동을 산정(山亭)²¹⁾에 머물게 하고 일동일정(一動一靜)²²⁾을 엄숙히 살피니, 길동이 이 일을 당하매 더욱 설움을 이기지 못하나 하릴없어²³⁾ 육도삼략(六韜三略)²⁴⁾과 천문(天文) 지리(地理)를 공부하더니, 공이 이 일을 알고 크게 근심하여 왈,

“이놈이 본디 재조가 있으며, 만일 범람(汎濫)²⁵⁾ 의사를 두면 상녀의 말과 같으리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하더라.

이때, 초란이 무녀와 상자(相子)를 교통(交通)²⁶⁾하여 공의 마음을 놀랍게 하고 길동을

1)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운명이나 길흉을 판단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여자.

2) 얼굴의 생김새.

3) 인재를 추천함.

4) 몹시 반함.

5) 은으로 만든 돈.

6) 상(相)을 보는 사람. 앞서 나온 관상녀를 이름.

7) 홍 판서의 정부인 유씨.

8) 대청 아래.

9) 이 말.

10)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

11) 관상녀.

12) 지체가 높은 집안의 나이 어린 아들. 여기서는 홍길동.

13)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지위나 문벌.

14) 옆이나 곁.

15) 가슴 속.

16) 임금과 제후

17) 온 집안이 망하여 없어질 재앙.

18) 놀라 의심스럽게 여김.

19) 한참 동안 말이 없음.

20) 비밀이 밖으로 새어 나감.

21) 산속에 지어 놓은 정자.

22) 하나하나의 움직임

23) 어찌할 수 없어.

24) 중국의 병서(兵書). 육도는 주(周)나라 태공망이 지었고, 삼략은 한나라 장량이 지음.

25) 제 분수에 넘치는.

26) 서로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음.

없이 하고자 하여, 천금(千金)을 버려¹⁾ 자객(刺客)을 구하니 이름이 특재(特才)라. 전후사를 자세히 이르고 초란이 공께 고왈,

“일전 상녀가 아는 일이 귀신 같으매, 길동의 내사를 어찌 처치 하시려나이까? 천첩(賤妾)²⁾도 놀랍고 두려워하옵나니, 일찍 저를 없이 할만 같지 못하리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리어 왈,

“이 일은 내 장중(掌中)³⁾의 있으니, 너는 번거로이 굴지 말라.”

하고 물리치나, 심사가 자연 산란(散亂)⁴⁾하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하여 병이 된지라.

부인과 좌랑(佐郎)⁵⁾ 인현이 크게 근심하여 아무리⁶⁾ 줄 모르더니, 초란이 곁에 모셔다가 고왈,

“상공 환후(患候)가 위중(危重)하심은 길동을 두심이라. 천(賤)하온 소견(所見)은 길동을 죽여 없이 하면 상공의 병환도 쾌차(快差)⁷⁾하실 뿐 아니라, 문호(門戶)를 보존하오리니, 어찌 이를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부인 왈,

“아무리 그러나 천륜(天倫)⁸⁾이 지중(至重)⁹⁾하니 차마 어찌 행하리오.”

초란 왈,

“듣자오니 특재라 하는 자객이 있어 사람 죽임을 낭중취물(囊中取物)¹⁰⁾ 같이 한다 하오니, 천금을 주어 밤에 들어가 해(害)하오면, 상공이 아시나 하릴없사오리니, 부인은 재삼(再三)¹¹⁾ 생각하소서.”

1) 들여.

2)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를 낳추어 일컫던 말.

3) 손바닥 가운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력 범위 안에 있음을 뜻함.

4) 어수선하고 뒤숭숭함.

5) 조선조 육조(六曹)의 정6품 벼슬의 하나. 여기서는 길동의 이복형인 홍인형을 가리킴.

6) 어찌할

7) 병이 다 나음.

8) 부자 형제간의 변치 않는 떳떳한 도리.

9) 지극히 귀중함.

10) 주머니 속의 것을 집어낸다는 뜻으로, 아주 손쉬운 일의 일컬음.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려 왈,

“이는 차마 못할 바이로되,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요, 셋째는 홍문(洪門)¹²⁾을 보존함이라. 너의 계교(計巧)¹³⁾대로 행하라.”

초란이 대희하여 다시 특재를 불러 이 말을 자세히 이르고, 금야(今夜)¹⁴⁾에 급히 행하라 하니, 특재 응낙(應諾)하고 밤 들기를 기다리더라.

차설(且說)¹⁵⁾, 길동이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매 시각(時刻)을 머물지 못할 일이로되, 상공의 엄명(嚴命)이 지중하므로, 하릴없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차야(此夜)에 촉(燭)¹⁶⁾을 밝히고 주역(周易)¹⁷⁾을 잠심(潛心)¹⁸⁾하다가, 문득 들으니 까마귀 세 번 울고 가거늘, 길동이 괴이 여겨 혼잣말로 이르되,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꺼리거늘, 이제 울고 가니 심히 불길(不吉)하도다.”

하고, 잠깐 팔괘(八卦)¹⁹⁾를 벌려 보고 대경하여 서안을 물리치고 둔갑법(遁甲法)²⁰⁾을 행하여 그 동정을 살피더니, 사경(四更)²¹⁾은 하여, 한 사람이 비수(匕首)²²⁾를 들고 완완(緩緩)²³⁾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지라.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진언(眞言)²⁴⁾을 염(念)²⁵⁾하니, 홀연(忽然)²⁶⁾ 일진음풍(一陳陰

11) 두세 번

12) 홍씨가문.

13) 요리조리 생각해 낸 교묘한 꾀.

14) 오늘 밤.

15) 화제를 돌려 말함.

16) 촛불.

17) 중국 사서삼경의 하나로 점복(占卜)에 관한 책.

18) 마음을 가다듬어 깊이 생각함.

19) 주역에서 말하는 여덟 가지 괘로 길흉화복을 점침.

20) 귀신을 부려 남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몸을 감춘다는 술법.

21)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22) 날이 날카로운 단도.

23) 동작이 느리고 더딤.

24) 술법을 부리기 위해 외는 주문(呪文).

25) 읊음.

26) 갑자기.

風)1)이 일어나며, 집은 간데없고 첩첩한 산중에 풍경이 거룩한지라.

특재 대경하여 길동의 조화가 신기함을 알고 비수를 감추어 피하고자 하더니,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암절벽(層巖絶壁)이 가리었으니 진퇴유곡(進退維谷)2)이라.

사면(四面)으로 방황하더니 문득 저3)소리가 들리거늘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일위소동(一位少童)4)이 나귀를 타고 오며, 저 불기를 그치고 꾸짖어 왈,

“네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죄한 사람을 해하면 어찌 천양(天殃)5)이 없으리오?”

하고 진언을 엿하더니, 홀연(忽然) 일진(一陣)6) 흑운(黑雲)이 일어나며 큰비 붓듯이 오고 사석(沙石)7)이 날리거늘, 특재 정신을 수습하여 살펴보니 길동이라.

비록 그 재조를 신기히 여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리오.’ 하고 달려들며 대호(大呼)8) 왈,

“너는 죽어도 나를 원(怨)9)치 말라. 초란이 무녀와 상자로 하여금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함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오.”

하고 칼을 들고 달려들거늘, 길동이 분기를 참지 못하여 요술로 특재의 칼을 앗아 들고 대매(大罵)10) 왈,

“네 재물을 탐하여 사람 죽임을 좋아하니 너 같은 무도(無道)한 놈을 죽여 후환을 없이 하리라.”

하고, 한번 칼을 드니, 특재의 머리 방중(房中)11)에 내려지는지라. 길동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이 밤의 바로 상녀를 잡아 특재 죽은 방에 들이치고 꾸짖어 왈,

“네 나와 더불어 무슨 원수가 있기에 초란과 한가지로12) 나를 죽이려 하더냐?”

하고 베이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이때, 길동이 양인(兩人)13)을 죽이고 건상(乾象)14)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로 기울어지고 월색은 희미하여 수회(愁懷)15)를 돕는지라.

분기를 참지 못하여 또 초란을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심을 깨닫고 칼을 던지며 망명도생(亡命圖生)16)함을 생각하고, 바로 상공 침소에 나아가 하직을 고하고자 하더니, 이때 공이 창외(窓外)에 인적 있음을 꾀어 여겨 창을 열고 보니, 이 곧 길동이라.

인견(引見)17) 왈,

“밤이 깊었거늘 네 어찌 자지 아니하고 이리 방황하느냐?”

길동이 복지(伏地)18) 대왈,

“소인이 일찍 부생모혹지은을 만분지일(萬分之一)19)이나 갚을까 하였더니, 가내(家內)20)에 불의지인(不義之人)21)이 있사와, 상공께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려 하오매, 겨우 목숨은 보전하였사오나, 상공을 피할 길 없삽기로 금일 상공께 하직을 고하나이다.”

하거늘, 공이 대경 왈,

“네 무슨 변고(變故)22)가 있기에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길동이 대왈,

“날이 밝으면 자연 아시려니와, 소인의 신세는 부운(浮雲)23)과 같사오니, 상공의 버린 자

1) 한 줄기의 음산한 바람.

2)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이,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림.

3) 멀리.

4) 나이 어린 동자 한 사람.

5) 하늘이 내리는 재앙.

6) 한 무리

7) 모래와 돌.

8) 큰 소리로 부름.

9) 원망하지.

10) 크게 꾸짖음.

11) 방 안

12) 함께

13) 두 사람. 특재와 상녀.

14) 하늘.

15) 슬픈 마음.

16) 위험을 피해 달아나서 살기를 꾀함.

17) 맞아들여 만나봄.

18) 땅에 엎드림.

19) 만으로 나눈 것의 하나. 아주 적은 경우.

20) 집안

21) 의롭지 못한 사람.

22)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

식이 어찌 방소(方所)¹⁾를 두리이까?”

하며, 쌍루(雙淚)²⁾가 종횡(縱橫)³⁾하여 말을 이루지 못하거늘, 공이 그 형상을 보고 측은히 여겨 개유(開諭)⁴⁾ 왈,

“내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느니, 금일로부터 호부호형함을 허(許)⁵⁾하노라.”

길동이 재배 왈,

“소자의 일편지한(一片之恨)⁶⁾을 야야(爺爺)⁷⁾가 풀어 주옵시니 죽어도 한이 없도소이다. 복망, 야야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재배 하직하니, 공이 붙들지 못하고 다만 무사함을 당부하더라.

길동이 또 어미 침소에 가 이별을 고하여 왈,

“소자가 지금 슬하를 떠나오매 다시 모실 날이 있사오리니, 모친은 그사이 귀체를保重 하소서.”

춘낭(春娘)⁸⁾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변고가 있음을 짐작하나, 아자(兒子)⁹⁾의 하직함을 보고 집수(執手)¹⁰⁾ 통곡 왈,

“네 어디로 향하고자 하느냐? 한집에 있어도 처소(處所)가 초간(稍間)¹¹⁾하여 매양 연연(戀戀)¹²⁾하더니,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보내고 어찌 잊으리오. 너는 수이 돌아와 모자가 상봉(相逢)함을 바라노라.”

길동이 재배 하직하고 문을 나매, 운산(雲山)¹³⁾이 첩첩(疊疊)하여 지향(指向) 없이 행하니 어찌 가련치 아니리오.

차설, 초란이 특재의 소식 없음을 십분(十分)¹⁴⁾ 의아하여 사기(事機)¹⁵⁾를 탐지하니, 길동은 간데없고 특재의 주검과 계집의 시신이 방중에 있다 하거늘, 초란이 혼비백산(魂飛魄散)¹⁶⁾하여 급히 부인에게 고하니, 부인이 또한 대경하여 좌랑을 불러 이 일을 이르며 상공께 고하니, 공이 대경失色(大驚失色) 왈,

“길동이 밤에 와 슬피 하직함을 가장 꾀여졌더니, 이 일이 있도다.”

좌랑이 감히 은휘(隱諱)¹⁷⁾치 못하여 초란의 실사(實事)¹⁸⁾를 고하니, 공이 더욱 분노하여 일변 초란을 내치고, 가만히 그 시체를 없이 하며, 노복을 불러 이런 말을 내지 말라 당부하더라.

각설(却說)¹⁹⁾ 길동이 부모를 이별하고 문을 나매, 일신이 표박(漂迫)²⁰⁾하여 정처 없이 행하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경개(景概)²¹⁾ 절승(絶勝)²²⁾한지라.

인가(人家)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석문(石門)이 닫혔거늘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원(平原)²³⁾ 광야(曠野)에 수백 호 인가가 즐비(櫛比)²⁴⁾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하며 즐기니, 이곳은 도적의 굴혈(窟穴)²⁵⁾이라.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위인(爲人)이 녹록(碌碌)지²⁶⁾ 앓음을 반겨 문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에 찾아왔느냐? 이곳은 영웅이 모였으나 아직 괴수(魁

23) 뜰구름.

1) 방향과 처소.

2) 두 줄기의 눈물.

3) 거침없이 오가거나 이리저리 다님.

4) 타일러 가르침.

5) 허락함.

6) 한 조각의 한.

7) 아버지.

8) 길동의 생모 춘섬을 말함.

9) 아들.

10) 손을 잡음.

11) 사이가 멀어짐.

12) 그리워함.

13) 구름이 끼어 있는 먼 산.

14) 충분히.

15) 일이 되어가는 기틀.

16) 혼백이 이리저리 날아 흩어짐.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17) 꺼리어 감추거나 숨김.

18) 사실로 있는 일.

19) 화제를 돌림.

20) 흘러 떠돌.

21) 경치. 풍경.

22) 경치가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게 좋음.

23) 넓고 평평한 들판.

24) 많은 것이 빗살처럼 뻗뻗하게 늘어서 있음.

25) 도둑의 소굴.

26) 보잘것없는.

道)¹⁾를 정(定)치 못하였으니, 그대 만일 용력(勇力)²⁾이 있어 참여코자 할진대 저 돌을 들어보라.”

길동이 이 말을 듣고 다행하여 재배 왓,

“나는 경성(京城) 흥 판서의 천첩 소생 길동이라니, 가중(家中) 천대를 받지 않으려 하여 사해(四海)³⁾ 팔방(八方)⁴⁾으로 정처 없이 다니더니, 우연히 이곳에 들어와 모든 호걸의 동료(同僚)됨을 이르시니, 불승(不勝)⁵⁾ 감사 하거니와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 들기를 근심 하리오.”

하고, 그 돌을 들어 수십 보를 행하다가 던지니 그 돌 무게 천 근이라.

제적(諸賊)⁶⁾이 일시에 칭찬 왓,

“과연 장사(壯士)이로다. 우리 수천 명 중의 이 돌 들 자가 없더니, 오늘날 하늘이 도우사 장군을 주심이로다.”

하고 길동을 상좌(上座)⁷⁾에 앉히고, 술을 차례로 권하고, 백마(白馬) 잡아 맹세하며 언약(言約)을 굳게 하니, 중인(衆人)⁸⁾이 일시에 응낙(應諾)하고 종일 즐기더라.

이후로 길동의 제인(諸人)⁹⁾으로 더불어 무예를 연습하여 수월지내(數月之內)¹⁰⁾에 군법(軍法)이 정제(整齊)¹¹⁾한지라.

일일은 제인이 이르되,

“아등(我等)¹²⁾이 벌써 함천(陝川) 해인사(海印寺)를 쳐 그 재물을 탈취(奪取)코자 하나, 지략(智略)이 부족하여 거조(舉措)¹³⁾를 발(發)¹⁴⁾치 못하였더니, 이제 장군의 의향이 어

떠하시이까?”

길동이 소왓(笑曰)¹⁵⁾,

“내 장차 발군(發軍)¹⁶⁾하리니, 그대 등은 지휘(指揮)대로 하라.”

하고, 청포흑대(淸泡黑帶)¹⁷⁾에 나귀를 타고 종자(從者)¹⁸⁾ 수인(數人)을 데리고 나가며 왓,

“내 그 절에 가 동정을 보고 오리라.”

하고 가니, 완연(完然)¹⁹⁾한 재상가 자제(子弟)라. 그 절에 들어가 먼저 수승(首僧)²⁰⁾을 불러 이르되,

“나는 경성 흥 판서택 자제라. 이 절에 와 글공부하러 왔거니와, 명일(明日)에 백미(白米) 이십 석을 보낼 것이니, 음식을 정(淨)히²¹⁾ 차리면 너희들도 한가지로 먹으리라.”

하고, 사중(寺中)²²⁾을 두루 살펴보고 후일을 기약하고 동구(洞口)를 나오니, 제승(諸僧)²³⁾이 기뻐하더라. 길동이 돌아와 백미 수십 석을 보내고 중인을 불러 왓,

“내 아무 날은 그 절에 가 이리이리 하리니, 그대 등은 뒤를 쫓아와 이리이리 하라.”

하고, 그날을 기다려 종자 수십 인을 데리고 해인사에 이르니, 제승이 맞아 들어가니, 길동이 노승(老僧)을 불러 문왓,

“내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지 아니하더뇨?”

노승 왓,

“어찌 부족하리이까. 너무 황감(惶感)²⁴⁾하여 이다.”

길동이 상좌에 앉고 제승을 일제히 청하여 각기 상을 받게 하고, 먼저 술을 마시며 차례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황감하여 하더라.

길동이 상을 받고 먹더니, 문득 모래를 가만히 입에 넣고 깨무니, 그 소리가 큰 지라.

1)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2) 씩씩한 힘.

3) 온 세상

4) 모든 방향 또는 방면

5)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참거나 억누르지 못함

6) 여러 도적.

7) 윗자리.

8) 여러 사람.

9) 모든 사람.

10) 여러 달 안에

11)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

12) 우리들.

13) 행동.

14) 일으킴.

15) 웃으며 말하기를,

16) 군사를 일으킴.

17) 푸른 도포와 검은 띠.

18) 따르는 자. 부하.

19) 흠 없이 완전함.

20) 주지승(住持僧).

21) 깨끗하게.

22) 절 안.

23) 모든 승려.

24) 황송하고 감격스러움.

제승이 듣고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거짓 대로(大怒)하여 꾸짖어 왈,

“너희 등이 어찌 음식을 이다지 부정(不淨)¹⁾케 하느뇨? 이는 반드시 능멸(凌蔑)²⁾함이라.”

하고, 종자에게 분부하여 제승을 다 한 줄에 결박하여 앉히니, 사중이 황겁하여 아무리 할 줄 모르는지라. 이윽고 대적(大賊)³⁾ 수백여 명이 일시의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다 제것 가져가듯 하니, 제승이 보고 다만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이라.

이때 불목한⁴⁾이 마침 나갔다가 이런 일을 보고 즉시 관군의 고하니, 합천 원(員)⁵⁾이 듣고 관군(官軍)을 조발(調發)⁶⁾하여 그 도적을 잡으라 하니, 수백 장교(將校)⁷⁾ 도적의 뒤를 쫓을 새, 문득 보니 한 중이 송낙⁸⁾을 쓰고 또 장삼 입고 뒤편에 올라 왜여⁹⁾ 왈,

“도적이 저 북편 소로(小路)로 가니 빨리 가 잡으소서.”

하거늘, 관군이 그 절 중이 가리키는 줄을 알고 풍우(風雨)같이 북편 소로로 찾아가다가 날이 저문 후 잡지 못하고 돌아 가니라.

길동이 제적을 남편 대로(大路)로 보내고 제 홀로 중의 복색(服色)¹⁰⁾으로 관군을 속여 무사히 굴혈로 돌아오니, 모든 사람이 벌써 재물을 수탐(搜探)¹¹⁾하여 왔는지라.

일시의 나와 사례하거늘, 길동이 소왈,

“장부가 이만 재조가 없으면 어찌 중인의 괴수 되리오.”

하더라.

이후로 길동이 자호(自號)¹²⁾를 활빈당(活貧

黨)¹³⁾이라 하여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각읍 수령이 불의(不義)로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혹 지빈무의(至貧無依)¹⁴⁾한 자가 있으면 구제(救濟)¹⁵⁾하며 백성을 침범치 아니하고, 나라에 속한 재물은 추호(秋毫)¹⁶⁾도 범(犯)치 아니하니, 이러므로 제적이 그 의취(意趣)¹⁷⁾를 항복하더라.

일일은 길동이 제인을 모호고 의논 왈,

“이제 함경 감사(監司)¹⁸⁾가 탐관오리(貪官汚吏)¹⁹⁾로 준민고택(浚民膏澤)²⁰⁾하여 백성이 다 견디지 못하는지라. 우리 등이 그저 두지 못하리니, 그대 등은 나의 지휘대로 하라.”

하고, 하나씩 흘러 들어가 아무 날 밤에 기약을 정하고 남문 밖에 불을 지르니, 감사가 대경하여 그 불을 구하라 하니, 관속(官屬)²¹⁾이며 백성들이 일시에 내달아 그 불을 구할새, 길동의 수백 적당(賊黨)²²⁾이 일시에 城中에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전곡(錢穀)²³⁾과 군기(軍旗)를 수탐하여 북문으로 달아나니, 성중이 요란하여 물 끓듯 하는지라.

감사가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당하여 아무리 할 줄 모르더니, 날이 밝은 후 살펴보니 창고의 군기와 전곡이 비었거늘, 감사가 대경실색(大驚失色)²⁴⁾하여 그 도적 잡기를 힘쓰더니, 홀연 북문에 방(榜)²⁵⁾을 붙였으되,

‘아무 날 전곡 도적(盜賊)한 자는 활빈당 행수(行首)²⁶⁾ 홍길동이라.’

12) 자기의 호를 스스로 지어 부름.

13) ‘빈민을 살려 내는 무리’라는 뜻.

14) 지극히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음.

15) 재해를 입거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줌.

16) 가을철에 가늘어진 짐승의 털. 몹시 적음의 비유.

17) 의지와 취향

18) 관찰사

19) 탐욕이 많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20) 기름을 짜듯이 백성의 재물을 착취함.

21) 지방 관아(官衙)의 아전과 하인.

22) 도적의 무리.

23) 돈과 곡식

24)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25)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잘 보이는 장소에 써 붙이는 글.

26) 기관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1) 깨끗하지 못함.

2) 업신여겨 깔봄.

3) 큰 도적

4) 절에서 불이나 때고 밥이나 짓는 사람.

5) 옛날 지방의 관리.

6) 군대를 뽑아 출동시킴.

7) 각 군영과 지방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던 벼슬아치.

8) 소나무 겨우살이로 엮어 만든 중의 모자.

9) 외쳐.

10) 신분이나 직업 따위에 맞추어 입던 옷의 꾸밈새.

11) 뒤져 찾아냄.

하였거늘, 감사가 발군하여 그 도적을 잡으려 하더라.

차설, 길동이 제적과 한가지로 전곡을 많이 도적하였으나, 행여 길에서 잡힐까 염려하여 둔갑법과 축지법(縮地法)¹⁾을 행하여 처소(處所)에 돌아오니 날이 새고자 하였더라.

일일은 길동이 제인을 모으고 의논 왈,

“이제 우리 합천 해인사의 가 재물 탈취하고, 또 함경 감영의 가 전곡을 도적하여 소문이 파다하려니와, 나의 성명을 써 감영(監營)에 붙였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잡히기 쉬울 지라. 그대 등은 나의 재조를 보라.”

하고, 즉시 초인(草人)²⁾ 일곱을 만들어 진언을 얹하고 혼백(魂魄)³⁾을 붙이니, 일곱 길동이 일시의 팔을 뻗내며 크게 소리하고 한 곳에 모여 난만(爛漫)⁴⁾히 수작(受爵)⁵⁾하니, 어느 것이 정(正)길동⁶⁾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팔도(八道)에 하나씩 흩어지되 각각 사람 수백여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도 정길동이 어느 곳에 있는 줄 알지 못할러라.

여덟 길동이 팔도에 다니며 호풍환우(呼風喚雨)⁷⁾하는 술법을 행하니, 각읍(各邑) 창곡(倉穀)⁸⁾이 일야간(一夜間)⁹⁾에 종적 없이 가져가며, 서울 오는 봉물(封物)¹⁰⁾을 의심 없이 탈취하니, 팔도 각읍이 소요(騷擾)¹¹⁾하여 밤에 능히 잠을 자지 못하고 도로의 행인이 끊어지니, 이러므로 팔도가 요란한지라.

감사가 이 일로 장계(狀啓)¹²⁾하니 대강하였으되,

“난데없는 홍길동이란 대적(大賊)¹³⁾이 있어 능히 풍운(風雲)을 짓고 각읍의 재물을 탈취 하오며, 봉송(奉送)¹⁴⁾하는 물종(物種)¹⁵⁾이 올라가지 못하여 작난¹⁶⁾이 무수하오니, 그 도적을 잡지 못하오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 줄 알지 못하오리니, 복망, 성상(聖上)¹⁷⁾은 좌우 포청(左右捕廳)¹⁸⁾으로 잡게 하소서.”

하였더라.

상(上)¹⁹⁾이 보시고, 대경하사 포장(捕將)²⁰⁾을 명초(命招)²¹⁾하실 새, 연(連)하여²²⁾ 팔도 장계를 올리는지라. 연하여 떼어보시니 도적의 이름이 다 홍길동이라 하였고, 전곡 잃은 일자를 보시니 한낱한시라.

상이 크게 놀라사 가라사대,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치우(蚩尤)²³⁾라도 당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신기한 놀임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 있어 한낱한시에 도적하리오. 이는 심상(尋常)²⁴⁾한 도적이 아니라 잡기 어려우리니, 좌우 포장이 발군하여 그 도적을 잡으라.”

하시니, 이때 우포장 이협[李協]이 주왈(奏曰)²⁵⁾,

“신이 비록 재조가 없사오나 그 도적을 잡아오리니, 전하는 근심 마소서. 이제 좌우 포장이 어찌 병출(竝出)²⁶⁾하오리이까.”

상이 옳이 여기서 급히 발행함을 재촉하시니, 이협이 하직하고 허다(許多)²⁷⁾ 관졸을 거느리고 발행할새, 각각 흩어져 아무 날 문경

1) 땅을 주름잡아 그 위를 걸어 순식간에 엄청난 거리를 가는 도술.

2) 풀로 사람처럼 만든 허수아비.

3) 넋.

4) 주고받는 의견이 충분히 많음.

5) 말을 주고받음.

6) 진짜 길동.

7) 바람과 비를 불러 올.

8) 창고 속에 있는 곡식.

9) 하룻밤 사이에.

10) 지방 관리가 서울의 고관에게 보내던 선물.

11)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게 들고일어남.

12) 지방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말.

13) 크게 떼를 지은 도둑.

14) 봉하여 보냄.

15) 물건의 종류.

16) 장난.

17) 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18)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함께 이르는 말.

19) 임금.

20) 포도대장(捕盜大將).

21)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를 부름.

22) 잇달아.

23) 중국 전설에 나오는 인물로 황제(黃帝)와 싸웠다고 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포한 인물.

24)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움.

25) 아뢰기를.

26) 함께 나감.

27) 수가 매우 많음.

으로 모이기로 약속하고, 이흠이 약간 포졸 수삼 인을 데리고 변복(變服)하고 다니더니, 일일은 날이 저물때 주점(酒店)을 찾아 쉬더니, 문득 일위(一位)¹⁾ 소년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 뵈거늘, 포장이 답례(答禮)하니, 그 소년이 문득 한숨 지며 왈,

“보천지하(普天下)에 막비왕토(莫非王土)요, 솔토지민(率土之濱)이 막비왕신(莫非王臣)이라²⁾ 하니, 소생이 비록 향곡(鄉曲)³⁾에 있으나 국가를 위하여 근심이로소이다.”

포장이 거짓 놀라며 왈,

“이 어찌 이름이뇨?”

소년 왈,

“이제 홍길동이란 도적이 팔도로 다니며 작난하매 인심이 소동하오니, 이놈을 잡아 없이지 못하오니, 어찌 분한(憤恨)⁴⁾치 않으리오.”

포장이 이 말을 듣고 왈,

“그대 기골이 장대(壯大)하고 언어(言語)가 충직(忠直)하니 나와 한가지로 그 도적을 잡음이 어떠하뇨?”

소년 왈,

“내 벌써 잡고자 하나 용력 있는 사람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어찌 만행(萬幸)⁵⁾이 아니리오마는, 그대 재조를 알지 못하니 그윽한 곳에 가 시험하자.”

하고 한가지로 행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으며 이르되,

“그대 힘을 다하여 두 발로 나를 차 내리치라.”

하고, 낭⁶⁾ 끝에 나아 앉거늘 포장이 생각하되,

“제 아무리 용력이 있은들 한번 차면 제 어

찌 아니 떨어지리오.”

하고 평생 힘을 다하여 두 발로 매우 차니, 그 소년이 문득 돌아앉으며 왈,

“그대 짐짓 장사이로다. 내 여러 사람을 시험하되, 나를 요동(搖動)하는 자가 없더니, 그대에게 차이어 오장이 울린 듯하도다. 그대 나를 따라오면 길동을 잡으리라.”

하고 첩첩한 산곡(山谷)⁷⁾으로 들어가거늘, 포장이 생각하되,

“나도 힘을 자랑할 만하더니, 오늘 저 소년의 힘을 보니, 어찌 놀랍지 않으리오. 그러나 이곳까지 왔으니 설마 저 소년 혼자라도 길동잡기를 근심하리오.”

하고 따라가더니, 그 소년이 문득 돌아서며 왈,

“이곳이 길동의 굴혈이라. 내 먼저 들어가 탐지(探知)할 것이니 그대는 여기에서 기다리라.”

포장이 마음에 의심되나, 빨리 잡아움을 당부하고 앉았더니, 이윽고 홀연 산곡으로부터 수십 군졸이 요란히 소리 지르며 내려오는지라, 포장이 대경하여 피하고자 하더니, 점점 가까이 와 포장을 결박하여 꾸짖어 왈,

“네 포도대장 이흠인가? 우리 등이 지부왕(地府王)⁸⁾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하고 철삭(鐵索)⁹⁾으로 목을 얹어 풍우(風雨)같이 몰아가니, 포장이 혼불부체(魂不附體)¹⁰⁾하여 아무런 줄 모르는지라. 한 곳에 다다라 소리 지르며 꿇어 앉히거늘, 포장이 정신을 가다듬어 치밀어 보니, 궁궐이 광대한대 무수한 황건역사(黃巾力士)가¹¹⁾ 좌우에 나열(羅列)¹²⁾하고, 전상(展上)에 일위 군왕(君王)이 좌탁(坐榻)¹³⁾에 앉아 여성(厲聲)¹⁴⁾ 왈,

1) 한 사람.

2) 온 천하가 임금의 땅 아님이 없고 모든 땅의 백성이 임금의 신하 아님이 없음. 곧 온 천하와 거기 사는 백성은 모두 임금의 것이라는 뜻.

3) 시골.

4) 분하고 한스러움.

5) 매우 다행함.

6) 벼랑

7) 산골짜기.

8) 저승의 왕. 염라대왕.

9) 쇠사슬.

10) 혼이 몸에 붙지 않음. 정신이 나감.

11) 누른 두건을 쓴 힘센 신장(神將).

12) 죽 벌여 놓음.

13) 관청에서 쓰던 의자의 하나

14) 성난 목소리.

“네 요마필부(么麼匹夫)¹⁾로 어찌 홍장군을 잡으려 하는고? 이러므로 너를 잡아 풍도섬(豊都城)²⁾에 가두리라.”

포장이 겨우 정신을 차려 왓,

“소인은 인간에 한미(寒微)³⁾한 사람이라, 무죄이 잡혀 왔으니, 살려 보냄을 바라나이다.”

하고, 심히 애걸(哀乞)하거늘 전상에서 웃음소리 나며 꾸짖어 왓,

“이 사람아. 나를 자세히 보라. 나는 곧 활빈당 행수(行首)⁴⁾ 홍길동이라, 그대 나를 잡으려 하매, 그 용력과 뜻을 알고자 하여, 작일(昨日)에 내 청포 소년으로 그대를 인도하여 이곳에 와 나의 위엄을 뵈게 함이라.”

하고, 언파에 좌우를 명하여 맨 것을 끌러 당(堂)에 앉히고 술을 내와 권하며 왓,

“그대는 부질없이 다니지 말고 빨리 돌아가 되, 나를 보았다 하면 반드시 죄책(罪責)⁵⁾이 있을 것이니, 부디 이런 말을 내지 말라.”

하고, 다시 술을 부어 권하며 좌우로 명하여 내어 보내라 하니, 포장이 생각하되,

‘내가 이것이 꿈인가 상시(常時)⁶⁾인가? 어찌하여 이리 왔는가?’

길동의 조화를 신기히 여겨 일어 가고자 하더니, 홀연 사지(四肢)를 요동치 못하는지라, 괴이 여겨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가죽 부대 속에 들었거늘 간신히 나와 본즉, 부대셋이 나무에 걸렸거늘 차례로 끌러 내어 보니, 처음 떠날 제, 데리고 왔던 하인이라.

서로 이르되,

“이것이 어떤 일이고? 우리 떠날 제 문경으로 모이자 하였더니, 어찌 이곳에 왔는고?”

하고 두루 살펴보니, 다른 곳 아니요, 장안성(長安城)⁷⁾ 북악(北岳)⁸⁾이라. 사인(四人)⁹⁾

이 어이없어 장안을 굽어보며 하인에게 일러 왓,

“너는 어찌 이곳에 왔느냐?”

삼인(三人)이 고왓,

“소인 등은 주점(酒店)에서 자유편니, 홀연 풍운에 싸이어 이리 왔사오니, 무슨 연고(緣故)를 알지 못함으로소이다.”

포장 왓,

“이 일이 가장 허무맹랑(虛無孟浪)¹⁰⁾하니 남에게 전설(傳說)¹¹⁾치 말라. 그러나 길동의 재조가 불측(不測)¹²⁾하니 어찌 인력으로써 잡으리오. 우리 등이 이제 그저 들어가면 필경 죄를 면치 못하리니, 아직 수월(數月)¹³⁾을 기다려 들어가자.”

하고 내려오더라.

차시(此時), 상(上)이 팔도에 행관(行關)¹⁴⁾하사 길동을 잡으라 하시되, 그 변화가 불측하여 장안 대로로 흑 초현(輶軒)¹⁵⁾도 타고 왕래하며, 흑 각읍에 노문(路門)¹⁶⁾ 놓고 쌍교(雙橋)¹⁷⁾도 타고 왕래하며, 흑 어사(御史)의 모양을 하여 각읍 수령 중 탐관오리(貪官汚吏)하는 자를 문득 선참후계(先斬後啓)¹⁸⁾하되 ‘가어사(假御史)¹⁹⁾ 홍길동의 계문(啓聞)²⁰⁾이라.’ 하니, 상이 더욱 진노(震怒)²¹⁾하사 왓,

“이놈이 각도(各道)에 다니며 이런 작난을 하되, 아무도 잡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7) 한성. 서울. 본래는 중국 한나라 때의 수도인 서안부(西安府)의 옛 이름.

8) 서울 북악산.

9) 포장과 세 하인.

10) 터무니없이 허황하고 실상(實相)이 없음.

11) 말을 전함.

12) 미루어 생각하기 어려움.

13) 몇 달.

14) 공문을 보냄.

15) 종2품 이상의 관원이 타던 외바퀴 수레.

16) 관리가 도착할 날짜를 갈 곳에 미리 알리는 공문.

17) 말 두 필에 매어 끌게 하던 가마.

18) 먼저 목을 베고 뒤에 임금에게 아뢰.

19) 가짜어사.

20)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글.

21) 존엄한 사람이 노함.

1) ‘요마’는 작다는 뜻이고 ‘필부’는 가치 없는 남자라는 뜻으로, 변변치 못한 남자.

2) 지옥. 원래는 중국 사천성에 속한 고을 이름.

3)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함.

4) 한 무리의 우두머리.

5) 잘못을 저지른 책임.

6) 평상시.

하시고 삼공육경(三公六卿)¹⁾을 모와 의논하시더니, 연하여 장계 오르니 다 팔도의 홍길동이 작난하는 장계라. 상이 차례로 보시고 크게 근심하사 좌우를 돌아보시며 문왈,

“이놈이 아마도 사람은 아니요, 귀신의 작폐(作弊)²⁾니, 조신(朝臣)³⁾ 중 다투 그 근본을 짐작하리오?”

일인(一人)이 출반주(出班奏)⁴⁾왈,

“홍길동은 전임(前任) 이조판서 홍모의 서자(庶子)⁵⁾요, 병조좌랑 홍인형의 서제(庶弟)⁶⁾오니, 이제 그 부자를 나래(拿來)⁷⁾하여 친문(親聞)⁸⁾하시면 자연 아실까 하나이다.”

상이 익노(益怒)⁹⁾ 왈,

“이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느냐.”

하시고, 즉시 홍모는 금부(禁府)¹⁰⁾로 나수(拿囚)¹¹⁾하고, 먼저 인형을 잡아들여 친국(親鞫)¹²⁾하실새, 천위(天威)¹³⁾ 진노하사 서안을 쳐 가라사대,

“길동이란 도적이 너의 서제라 하니, 어찌 금단(禁斷)¹⁴⁾치 아니하고 그저 두어 국가의 대환(大患)이 되게 하느냐? 네 만일 잡아들이지 아니하면, 너의 부자의 충효를 돌아보지 않으리니, 빨리 잡아들여 조선 대변(大變)¹⁵⁾을 없게 하라.”

인형이 황공하여 면관돈수(免冠頓首)¹⁶⁾ 왈,

“신의 천한 아이 있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망명도주(亡命逃走)¹⁷⁾하온 지 수년이 지나오

되, 그 존망(存亡)을 아옵지 못하여, 신의 늙은 아버지 이로 인하여 신병(身病)이 위중하여 명재조석(命在朝夕)¹⁸⁾이온 중, 길동의 무도불측(無道不測)¹⁹⁾하므로 성상의 근심을 끼치오니, 신의 죄 만사무석(萬死無惜)²⁰⁾이오니, 복망, 전하는 자비지택(慈悲之澤)²¹⁾을 드리옵서²²⁾ 신의 아버지 죄를 사(赦)²³⁾하사, 집에 돌아가 조병(調病)²⁴⁾케 하시면, 신이 죽기로써 길동을 잡아 신의 부자의 죄를 속(贖)하올까 하나이다.”

상이 문과(聞罷)²⁵⁾에 천심(天心)이 감동하사, 즉시 홍모를 사하시고 인형으로 경상 감사를 제수(除授)²⁶⁾하사 왈,

“경이 만일 감사의 기구(機具)²⁷⁾ 없으면 길동을 잡지 못할 것이요, 일 년 한(限)²⁸⁾을 정하여 주나니 수이 잡아 들이라.”

하시니, 인형이 백배(百拜) 사은(謝恩)²⁹⁾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즉일(即日)³⁰⁾ 발행하여 감영에 도임(到任)³¹⁾하고 각읍에 방을 붙이니, 이는 길동을 달래는 방이라.

기사(記事)에 왈,

“사람이 세상의 나매 오륜(五倫)이 으뜸이여, 오륜이 있으면 인의예지(仁義禮智) 분명하거늘, 이를 알지 못하고 군부(君父)의 명을 거역하여 불충불효 되면, 어찌 세상에 용납하리오. 우리 아우 길동은 이런 일을 알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사로잡히라.

우리 부친이 너로 말미암아 병입골수(病入

1) 삼정승 육판서.

2) 폐단을 일으킴. 또는 일으킨 폐단.

3)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하

4) 많은 신하들 가운데서 혼자 임금께 나아가 아뢰.

5)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

6) 서모(庶母)의 몸에서 난 동생.

7) 잡아 옴.

8) 임금이 몸소 들음.

9) 더욱 화를 냄.

10) 의금부(義禁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문초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

11) 잡아 가둠.

12) 임금이 몸소 중죄인을 심문함.

13) 임금의 위엄.

14)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함.

15) 큰 변고.

16)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림.

17) 죽을죄를 저지른 사람이 몸을 피하여 멀리 도망함.

18) 목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이름.

19)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 막되기가 이를 데 없음.

20)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음.

21) 자비로운 은택.

22) 내리시어.

23) 지은 죄나 허물을 용서함.

24) 병을 조리함.

25) 듣기를 다함.

26)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림.

27) 인적·물적인 모든 설비와 세력.

28) 기한

29) 은혜를 감사히 여겨 사례함.

30) 바로 그날.

31) 지방의 관리가 근무지에 도착함.

骨髓)¹⁾하시고, 성상이 크게 근심하시니, 네 죄악이 관영(貫盈)²⁾한지라. 이러므로 나를 특별히 도백(道伯)³⁾을 제수하사 너를 잡아들이라 하시니, 만일 잡지 못하면 우리 홍문의 누대(累代)⁴⁾ 청덕(淸德)⁵⁾이 일조(一朝)⁶⁾에 멸하리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바라나니, 아우 길동은 이를 생각하여 일찍 자현(自現)⁷⁾하면 너의 죄도 덜을 것이요, 일문(一門)⁸⁾을 보존하리니, 아지 못게라.⁹⁾ 너는 만 번 생각하여 자현하라.”

하였더라.

감사가 이 방을 각읍에 붙이고 공사(公事)¹⁰⁾를 전폐(全廢)하여 길동이 자현하기만 기다기더니, 일일(一日)은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하인 수습을 거느리고 원문(轅門)¹¹⁾ 밖에 와 뵈움을 청한다 하거늘,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당상(堂上)¹²⁾에 올라 배알(拜謁)¹³⁾하거늘,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때로 기다리던 길동이라.

대경(大驚) 대희(大喜)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그 손을 잡아 오열유체(嗚咽流涕)¹⁴⁾ 왈,

“길동아, 네 한번 문을 나매 사생존망(死生存亡)을 알지 못하여 부친께서 병입고항(病入膏肓)¹⁵⁾하시거늘, 너는 가지록¹⁶⁾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의 큰 근심이 되게 하니, 네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행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의 비(比)치 못할 죄를 하느냐? 이러므로 성상이 진노하사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들이라 하시니, 이는 피치 못할 죄라. 너는 일찍 경사(京師)¹⁷⁾에 나아가 천명(天命)¹⁸⁾을 순수(順受)¹⁹⁾하라.”

하고 말을 마치며 눈물이 비 오듯 하거늘,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왈,

“천생(賤生)이 이에 이름은 부형(父兄)의 위태함을 구하고자 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으리오. 대저(大抵)²⁰⁾ 대감²¹⁾께서 당초(當初)에 천한 길동을 위하여 부친을 부친이라 하고 형을 형이라 하였던들 어찌 이에 이르리이까? 왕사(往事)²²⁾는 일러 쓸데없거니와 이제 소제(小弟)를 결박하여 경사로 올려보내소서.”

하고 다시 말이 없거늘,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일변 슬퍼하며, 일변 장계를 써 길동을 항쇄족쇄(項鎖足鎖)²³⁾하고 함거(轎車)²⁴⁾에 실어 건장한 장교 십여 인을 뽑아 압영(押領)²⁵⁾하게 하고 주야 배도(倍道)²⁶⁾하여 올려보내니, 각읍 백성들이 길동의 재조를 들었는지라. 잡아움을 듣고 길에 모여 구경하더라.

차시,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장안 인민이 망지소조(罔知所措)²⁷⁾하여 능히 알 리 없더라. 상이 놀라사 만조(滿朝)²⁸⁾를 모으시고 친국하실새, 여덟 길동을 잡아 올리니 저희 서로 다투어 이르되,

“네가 정(正)길동이요. 나는 아니라.”

하며 서로 싸우니, 어느 것이 정길동인지 분간치 못할러라. 상이 괴이 여기사 즉시 홍모를 명초(命招)²⁹⁾하사 왈,

“지자(知子)는 막여부(莫如父)이라³⁰⁾ 하니,

1) 병이 뻗속 깊이 들어감.

2) 가득 참.

3) 관찰사.

4) 여러 대.

5) 맑은 덕행.

6) 하루아침

7) 자수함.

8) 한 가문.

9) 알지 못하겠다.

10) 공적인 일

11) 병영(兵營)의 문.

12) 대청 위.

13) 웃어른을 찾아가 뵈.

14)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림.

15) 병이 약이나 침으로도 고칠 수 없는 고향에 들.

16) 갈수록

17) 서울.

18) 임금의 명령.

19) 순순히 받아들임.

20) 무릇.

21) 홍길동의 아버지 홍 판서.

22) 지나간 일.

23) 목에 칼을 채우고 발에 차꼬를 채움.

24) 죄인을 실어나르는 수레.

25) 죄인을 데리고 옴.

26) 길을 두 배로 빨리 감.

27) 어쩔 바를 모름.

28)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

29)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를 부름.

저 여덟 중에 경(卿)¹⁾의 아들을 찾아내라.”

홍공(洪公)²⁾이 황공하여 돈수청죄(頓首請罪)³⁾ 왈,

“신(臣)의 천생 길동은 좌편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일로조차 알리로소이다.”

하고 여덟 길동을 꾸짖어 왈,

“네 지척의 임금의 계시고 아래로 네 아비 있거늘,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끼지 말라.”

하고 피를 토하며 없어져 기절하니, 상이 대경하사 약원(藥院)⁴⁾으로 구하라 하시되, 차도(差度)가 없는지라, 여덟 길동이 이 경상(景狀)을 보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며 낭중(囊中)⁵⁾으로부터 환약(丸藥) 일 개씩 내어 입에 들이오니, 홍공이 반향(半餉)⁶⁾ 후 정신을 차리는지라.

길동 등이 상께 주왈,

“신의 아비 국은(國恩)을 많이 입었사오니, 신이 어찌 감히 불측한 행사(行事)를 하오리까마는, 신은 본디 천비 소생이라, 그 아비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평생 한이 맺혔삽기로 집을 버리고 적당(賊黨)⁷⁾에 참례(僭禮)⁸⁾하오나 백성은 추호(秋毫) 불범(不犯)⁹⁾하옵고, 각읍 수령의 준민고택(浚民膏澤)¹⁰⁾하는 재물을 탈취하였사오니, 이제 십 년을 지내면 조선을 떠나 가울 곳이 있사오니, 복걸(伏乞)¹¹⁾ 성상은 근심치 마시고 신을 잡는 관자(關子)¹²⁾를 거두옵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여덟 길동이 일시에 넘어지니, 자세히 본즉 다 초인(草人)이라. 상이

더욱 놀라시며 정길동 잡기를 다시 행관(行關)¹³⁾하여 팔도에 내리시니라.

차설, 길동이 초인을 없이 하고 두루 다니더니 사대문(四大門)에 방을 붙였으되,

“요신(妖神)¹⁴⁾ 홍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하리니, 병조판서 교지(敎旨)¹⁵⁾를 내리시면 잡히리이다.”

하였거늘, 상이 그 방문(榜文)¹⁶⁾을 보시고 조신을 모아 의논하시니, 제신 왈,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옵고 도리어 병조판서 제수하심은 불가사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¹⁷⁾이로소이다.”

상이 옳이 여기사 다만 경상 감사에게 길동 잡기를 재촉하시더라.

이때 경상 감사가 엄지(嚴旨)¹⁸⁾를 보고 황공송울(惶恐悚慄)¹⁹⁾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니, 일일은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절하고 왈,

“소제 지금은 정작 길동이오니, 형장(兄丈)²⁰⁾은 아무 염려 마시고 소제를 결박하여 경사로 보내소서.”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집수유체(執手流涕)²¹⁾ 왈,

“이 무거(無據)²²⁾한 아이야. 너도 나와 동기(同氣)거늘 부형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일국이 소동케 하니, 어찌 애답지 않으리오. 네 이제 정작 몸이 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自願)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하고, 급히 길동의 좌편 다리를 보니, 과연 흠점(欠點)이 있거늘, 즉시 사지(四肢)를 각별 결박하고 함거에 넣어 건장한 장교 수십을 가리어 철통같이 싸고 풍우(風雨)같이 몰아

30) 자식을 아는 것은 아버지 만한 자가 없음.

1) 임금이 이품(二品) 이상의 관원을 일컫던 말.

2) 홍판서

3) 머리를 조아리며 죄값을 청함.

4) 대궐 안에 소용되는 의약을 맡던 관아.

5) 주머니 속.

6) 반나절.

7) 도둑의 무리.

8) 참여함.

9) 남의 물건을 침범하지 아니함.

10) 기름을 짜듯 백성의 재물을 착취함.

11) 엎드려 빌건대.

12) 상관이 하관에게 보내던 공문.

13) 공문을 보냄.

14) 요사스러운 귀신.

15) 임금이 내리는 임명장.

16)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붙여 놓은 글.

17) 이웃 나라에 소문이 들리게 해서는 아니 됨.

18) 임금의 엄한 교지(敎旨).

19) 높은 자리에 놀려 두려움.

20) 형을 높여 부르는 칭호.

21)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림.

22) 아직 철이 들지 않음.

가되, 길동의 안색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더라.

여러 날만에 경성에 다다르니 궐문(闕門)에 이르러는 길동이 한번 몸을 요동(搖動)¹⁾하매, 철삭(鐵索)이 끊어지고 함거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표연(飄然)²⁾히 운무(雲霧)에 묻혀 가니, 장교와 제군이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고 다만 뉘를 잃을 따름이라.

할 수 없어 이 연유로 상달(上達)³⁾하오니, 상이 들으시고 왈,

“천고(千古)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오.”

하시고 크게 근심하시니, 제신 중 일인이 주왈,

“그 길동의 원(願)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리라 하오니, 한번 제 원을 풀면 제 스스로 사은(謝恩)하오리니, 이때를 타 잡음이 좋을까 하나이다.”

상이 옳이 여기서 즉시 홍길동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시고 사문에 방을 붙이니라.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관대(紗帽冠帶)⁴⁾에 서(犀)띠⁵⁾ 띠고 높은 초헌(輶軒)⁶⁾을 헌거(軒擧)롭게⁷⁾ 높이 타고 대로상(大路上)에 완연히 들어오며 이르되,

“이제 홍 판서⁸⁾ 사은하러 온다.”

하니, 병조 하속(下屬)⁹⁾이 맞아 호위하여 궐내에 들어갈새, 백관(百官)¹⁰⁾이 의논하되,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부수(刀斧手)¹¹⁾를 매복(埋伏)¹²⁾하였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쳐 죽이라.”

1) 흔들어 움직임.

2) 아주 가벼움.

3) 위로 뜻을 전달함.

4) 벼슬아치들이 쓰던, 검은 사불이로 만든 예모와 허리에 두르던 띠.

5) 1품의 관리가 띠던 띠.

6) 종2품 이상의 관원이 타던 외바퀴 수레.

7) 풍채가 좋고 의젓하게.

8) 여기서는 홍길동을 가리킴.

9) 하인배

10) 수많은 관원.

11) 큰 칼과 도끼를 쓰는 군사.

12) 몰래 숨어 있음.

하고 약속을 정하였더니, 길동이 궐내의 들어가 숙배(肅拜)¹³⁾하고 주왈,

“소신이 죄악이 지중(至重)하옵거늘 도리어 천은(天恩)¹⁴⁾을 입사와 평생 한을 푸옵고 돌아가오나, 영결(永訣) 전하(殿下)하오니¹⁵⁾, 복망, 성상은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싸이어 가니,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할리라.

상이 보시고 도리어 차탄(嗟歎)¹⁶⁾ 왈,

“길동의 신기한 재조는 고금에 희한하도다. 제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으니, 다시는 작폐(作弊)할 길 없을 것이요, 비록 수상하나 일단 장부의 쾌한 마음이 있는지라 족히 염려 없을 게라.”

하시고, 팔도에 사문(赦文)¹⁷⁾을 내리어 길동 잡는 공사(公事)를 거두시니라.

각설, 길동이 제 곳에 돌아와 제적에게 분부하되,

“내 다녀올 곳이 있으니, 여등(汝等)¹⁸⁾은 아무 데도 출입 말고 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고, 즉시 몸을 솟구어 남경(南京)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다다르니, 이는 소위 울도국(聿島國)¹⁹⁾이라.

사면을 살펴보니 산천이 청수(淸水)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가히 안신(安身)²⁰⁾할 곳이라 하고, 남경에 들어가 구경하며 또 제도라 하는 섬 중에 들어가 두루 다니며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살펴며 다니더니, 오봉산(五峯山)의 이르러는 짐짓 제일강산이라. 주회(周回)²¹⁾ 칠백 리요, 옥야답(玉野畝)²²⁾이 가득하

13) 엄숙하게 절함.

14) 임금의 은혜.

15) 영원히 전하와 이별하오니

16) 탄식하고 한탄함.

17) 죄를 특별히 용서한다는 내용의 글.

18) 너희들은

19) 가상적인 지명인 듯함.

20) 몸을 편안하게 함.

21) 둘레.

22) 기름진 들의 논.

여 살기의 정히 의합(宜合)¹⁾한지라.

내심(內心)에 헤오되,

‘내 이미 조선을 하직하였으니, 이곳에 와 아직 은거(隱居)하여다가 대사를 도모하리라.’

하고, 표연(飄然)²⁾히 본(本) 곳에 돌아와 제인에게 일러 왈,

“그대 아무 날 양천강(陽川江)³⁾ 변에 가 배를 많이 지어 모월 모일에 경성 한강의 대령하라. 내 임금께 청하여 정조(精租)⁴⁾ 일천 석을 구득(求得)⁵⁾하여 올 것이니 기약을 어기지 말라.”

하더라.

각설, 홍공(洪公)이 길동이 작난 없으므로 신병(身病)⁶⁾이 쾌차하고, 상이 또한 근심 없이 지내더니, 차시(此時) 추구월 망간(望間)⁷⁾에 상이 월색을 띠어 후원에 배회하실새, 문득 일진 청풍이 일어나며 공중으로써 옥저 소리 청아(清雅)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함께 복지하거늘, 상이 경문(驚問)⁸⁾ 왈,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에 강굴(降屈)⁹⁾하여 무슨 일을 이르고자 하느냐?”

소년이 복지(伏地) 주왈,

“신은 전임(前任) 병조판서 홍길동으로소이다.”

상이 경문 왈,

“네 어찌 심야(深夜)에 왔느냐?”

길동이 대왈,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萬世)¹⁰⁾를 모실까 하오나, 천비 소생이라 문(文)으로 옥당(玉堂)¹¹⁾에 막히웁고, 무(武)로 선천(宣薦)¹²⁾의

막힐지라, 이리므로 사방에 오유(遨遊)¹³⁾하여 관부(官府)¹⁴⁾에 작폐(作弊)하고 조정에 득죄(得罪)하옵은 전하가 아시게 하옵이더니, 신의 소원을 풀어 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복망,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공중에 올라 표연히 가거늘, 상이 그 재조를 못내 칭찬하시더라. 이후로는 길동의 폐단(弊端)이 없으며, 사방이 태평하더라.

각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 집을 짓고 농업을 힘쓰고 재조를 부려 무고(武庫)¹⁵⁾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정양족(兵精糧足)¹⁶⁾하더라.

일일은 길동이 살촉의 바를 약을 얻으러 망당산(芒碭山)¹⁷⁾으로 향하더니, 낙천¹⁸⁾ 땅에 이르러는 그곳에 부자 백룡이란 사람이 있으니, 일찍 한 딸을 두었으되, 재질(才質)이 비상(非常)하매 부모가 애중(愛重)하더니, 일일은 광풍(狂風)이 대작(大作)¹⁹⁾하며 딸이 간데없는지라, 백룡 부부가 슬퍼하며 천금을 흠어 사방으로 찾되 종적이 없는지라.

부부가 슬퍼하며 말을 펴 왈,

“아무라도 내 딸을 찾아주면, 가산(家産)을 반분(半分)²⁰⁾하고 사위를 삼으리라.”

하거늘,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심중에 측은 하나 하릴없이 망당산에 가 약을 캐며 들어가더니, 날이 저문지라 주저하더니, 문득 사람의

1) 적합함.

2) 아주 가벼움.

3) 양천(陽川) 근처의 한강 하류.

4) 벼.

5) 구하여 얻음.

6) 몸에 든 병.

7) 음력 보름께.

8) 놀라 물음.

9) 낮은 데 내려와 몸을 굽힘.

10) 영원한 세월.

11) 홍문관과 예문관의 벼슬.

12) 선전관천(宣傳官薦). 조선조에서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이 무관이 되려면 천(薦)을 넘어야 하는데, 하나는 선전관이 되는 천인 선천(宣薦)과 부장(部長)이 되는 천인 부천(部薦)이 있었음. 여기서는 앞의 것을 말함.

13) 거리낌 없이 노는 것.

14) 관아.

15) 무기고.

16) 병사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양식이 풍족함.

17) 중국 강소성 당산현에 있는 망당산을 일컫는 듯함.

18) 지명이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망당산과 가까이 있고 험준한 산이 있는 중국 절강성의 낙청(樂淸)인 듯도 함.

19) 크게 일어.

20) 절반으로 나눔.

소리 나며 등촉(燈燭)¹⁾이 조요(照耀)²⁾하거늘,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은 아니요, 미물(微物)이 앉아 지저귀거늘, 원래 이 짐승은 울동³⁾이란 짐승이라.

여러 해를 묵어 변화가 무궁하더라. 길동이 몸을 감추고 활로 쏘니, 그 중 괴수(魁首)가 맞은지라. 모두 소리 지르고 달아가거늘, 길동이 나무에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두루 약을 캐더니, 문득 괴물 수삼 명이 길동을 보고 문왈,

“그대는 무슨 일로 이 깊은 곳에 이르뇨?”

길동이 답왈,

“내 의술(醫術)을 알때 이 산에 들어와 약을 캐더니, 그대 등을 만나니 다행하도다.”

그것이 대희 왈,

“나는 이곳의 산 지가 오래더니, 우리 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작야(昨夜)⁴⁾에 잔치하더니 천살(天煞)⁵⁾을 맞아 위중한지라. 그대 명의(名醫)라 하니 선약(仙藥)⁶⁾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중상(重賞)⁷⁾을 얻으리라.”

하거늘, 길동이 헤오되,

‘이놈이 작야(昨夜)에 상(傷)한 놈이로다.’

하고 허락하니 그것이 길동을 인도하여 문의 세우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청하거늘, 길동 들어가 보니, 화각(畵閣)⁸⁾이 광려(廣麗)⁹⁾한 가운데 흉악한 것이 누워 신음하다가 길동을 보고 몸을 거동하며 왈,

“복(僕)¹⁰⁾이 우연히 천살을 맞아 위태하더니, 시자(侍者)¹¹⁾의 말을 듣고 그대를 청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살림이라. 그대는 재조를 아끼지 말라.”

길동이 사사(謝辭)¹²⁾하고 왈,

“먼저 내치(內治)¹³⁾할 약을 쓰고, 버금¹⁴⁾ 외치(外治)¹⁵⁾할 약을 씌이 좋을까 하노라.”

그것이 응낙하거늘, 길동 약낭(藥囊)¹⁶⁾에 독약(毒藥)을 내어 급히 온수(溫水)에 화(和)¹⁷⁾하여 먹이니, 식경(食頃)¹⁸⁾은 하여 한 소리 지르고 죽는지라. 모든 요괴 일시에 달려들거늘, 길동이 신통(神通)¹⁹⁾을 내어 모든 요괴를 짓치더니²⁰⁾, 문득 두 소년 여자가 애걸 왈,

“첩등은 요괴 아니라 인조(人曹)²¹⁾ 사람으로서 잡히어 왔사오니, 잔명(殘命)²²⁾을 구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하소서.”

길동이 백룡의 일을 생각하여 거주(居住)를 물으니, 하나는 백룡의 딸이요, 하나는 조철의 딸이라. 길동이 요괴를 소청(掃淸)²³⁾하고, 두 여자를 각각 제 부모를 찾아주니, 그 부모가 대희하여 즉일에 홍생(洪生)²⁴⁾ 맞아 사위를 삼으니, 제일 백소저요, 제이 조소저라. 길동이 일조(一朝)에 양처(兩妻)²⁵⁾을 얻고 두 집 가권(家眷)²⁶⁾을 거느려 제도섬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반기며 치하(致賀)하더라.

일일은 길동이 천문을 보다가 놀라 눈물을 흘리거늘, 제인이 문왈,

“무슨 연고로 슬피하느뇨?”

길동이 탄왈,

“내 부모를 천상(天上) 성신(星辰)²⁷⁾으로 안부를 짐작하더니, 건상(乾象)²⁸⁾을 본즉 부친

1) 등불.

2) 밝게 비침.

3) 상상의 동물로 원숭이의 일종.

4) 어젯밤.

5) 하늘이 내린 살(惡氣).

6) 효험이 썩 뛰어난 약.

7) 큰 상

8) 색을 칠한 집.

9) 넓고 아름다움.

10)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말.

11) 높은 이를 모시는 사람.

12) 감사함을 표시하는 말.

13) 신체의 내부를 치료함.

14) 다음으로.

15) 신체의 외부를 치료함.

16) 약을 넣는 주머니.

17) 섞어서.

18) 밥을 먹을 만한 얼마 안 되는 시간.

19) 신통한 능력

20) 몰아치더니.

21) 인간 세계.

22) 남은 목숨.

23) 깨끗이 없애 버림. 청소.

24) 홍길동.

25) 두 부인

26) 가족.

27) 별.

병세 위중하신지라. 내 몸이 원처(遠處)¹⁾에 있어 미치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 제인이 비감(悲感)²⁾하여 하더라.

이튿날 길동이 월봉산에 들어가 일장 대지(一場大地)³⁾을 얻고, 산역(山役)⁴⁾을 시작하되 석물(石物)⁵⁾을 국릉(國陵)⁶⁾과 같이하고, 일 척 대선(大船)을 준비하여 조선국 서강(西江)⁷⁾ 강변으로 대후(待候)⁸⁾하라 하고, 즉시 삭발위승(削髮爲僧)⁹⁾하여 일엽소선(一葉小船)¹⁰⁾을 타고 조선으로 향하니라.

각설, 홍판서가 홀연 득병(得病)하여 위중한지라, 부인과 인형을 불러 왈,

“내 죽으나 무한(無恨)¹¹⁾이로되 길동의 사생(死生)을 알지 못하니 유한(有恨)이라. 제 생존하였으면 찾아올 것이니 적서(嫡庶)¹²⁾를 분별(分辨)¹³⁾치 말고 제 어미를 대접하라.”

하고 명(命)이 진(盡)¹⁴⁾하니, 일가(一家)가 망극(罔極)하여 치상(治喪)¹⁵⁾할새, 산지(山地)¹⁶⁾을 구하지 못하여 민망하더니, 일일은 문리(門吏)¹⁷⁾ 보(報)하되¹⁸⁾,

“어떤 중이 와 영위(靈位)¹⁹⁾에 조문(弔問)하려 하나이다.”

하거늘, 궤이 여겨 들어오라 하니, 그 중이 들어와 방성대곡(放聲大哭)²⁰⁾하니 제인이 곡

절(曲折)²¹⁾을 몰라 면면상고(面面相顧)²²⁾하더라. 그 중이 상인(喪人)²³⁾에게 일장(一場)²⁴⁾ 통곡한 후 가로되,

“형장이 어찌 소제를 몰라보시나이까?”

하거늘, 상인이 자세히 보니, 이 곧 길동이라. 붙들고 통곡 왈,

“현제(賢弟)²⁵⁾나, 그 사이 어디 갔더뇨? 부공(父公)²⁶⁾이 생시의 유언(遺言)이 간절하시매, 어찌 인자(人子)의 도리리오.”

하고, 손을 이끌고 내당(內堂)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²⁷⁾을 뵈옵고 춘낭을 상면할새 일장통곡한 후 문왈,

“네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뇨?”

길동이 대왈,

“소자가 조선을 떠나 삭발위승하여 지술(地術)²⁸⁾을 배웠더니, 이제 부친을 위하여 대지(大地)를 얻었더니, 모친은 물려(勿慮)²⁹⁾하소서.”

인형이 대희 왈,

“네 재조가 기이한지라, 길지(吉地)³⁰⁾ 곧 얻었으면 무슨 염려 있으리오.”

하고, 명일 운구(運柩)³¹⁾하여 제 모친을 데리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길동의 지휘한 바 선척(船隻)³²⁾이 대후(待候)한지라. 배에 올라 살같이³³⁾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중인(衆人)이 수십 선척을 대후한지라.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거룩하더라.

어언지간((於焉之間)³⁴⁾에 산상(山上)에 다다

28) 하늘.

1) 먼 곳.

2) 슬프게 느낌.

3) 하나의 훌륭한 묘터.

4) 산에서 묘를 만드는 일.

5)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

6)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7) 서울의 서쪽에 있는 강 이름.

8) 기다림.

9) 머리 깎고 중이 됨.

10) 나뭇잎처럼 작은 배.

11) 무한 : 한이 없음.

12) 적자와 서자.

13) 분별.

14) 목숨을 거둠.

15) 상례(葬喪)를 치름.

16) 묘를 쓰기에 적당한 땅.

17) 문지기.

18) 알려되.

19) 상가에서 모시는 혼백이나 신위(神位).

20) 목놓아 크게 울.

21) 복잡한 사정이나 이유.

22) 서로 얼굴만 돌아봄.

23) 상주(喪主). 여기서는 홍길동의 이복형 홍인형

24) 한바탕

25) 아우를 좋게 부르는 말.

26) 아버지.

27) 유씨 부인.

28) 지리를 살펴 터의 좋고 나쁨을 점치는 기술.

29) 염려하지 않음.

30) 명당.

31) 시체를 넣은 관을 운반함.

32) 배

33) 날아가는 화살같이 빨리.

34)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르니,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山勢) 웅장한 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더라.

산역을 마치매 한가지로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 존고(尊姑)¹⁾와 숙숙(叔叔)²⁾을 마저 뵈온 후, 인형 춘낭이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歎服)³⁾하더라. 산역을 마치매 한가지로 길동의 처로 돌아오니, 춘낭이 길동의 장신(長身)⁴⁾함을 칭찬하더라.

여러 날이 되매, 인형이 길동과 춘낭을 이별하고 산소를 극진히 피심을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발행(發行)⁵⁾하여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온 후 전후수말(前後首末)⁶⁾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히 여기더라.

각설, 길동이 제전(祭奠)⁷⁾을 극진히 받들어 삼상(三喪)⁸⁾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武藝)⁹⁾를 익히며 농업을 힘쓰니, 병정약족(兵精糧足)¹⁰⁾한지라.

남중에 울도국이란 나라가 있으니, 옥야(沃野)¹¹⁾ 수천 리에 짐짓 천부지국(天府之國)¹²⁾이라, 길동이 매양 유의(有意)¹³⁾하던 바이라.

제인을 불러 왈,

“내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는데, 그대 등은 진심(盡心)¹⁴⁾하라.”

하고 즉일 진군할새, 길동이 스스로 선봉(先鋒)¹⁵⁾이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後軍將)을 삼아, 정병(精兵)¹⁶⁾ 오만을 거느려 울도국 철

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돋우니,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마(軍馬)가 이름을 보고 대경하여, 일변 왕에게 보(報)하고, 일지군(一枝軍)¹⁷⁾을 거느려 내달아 싸우거늘, 길동이 맞아 싸워 일합(一合)¹⁸⁾에 김현충을 베이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안무(按撫)¹⁹⁾하고 최철로 철봉을 지키오고, 대군을 휘동(麾動)²⁰⁾하여 바로 도성을 칠새 격서(檄書)²¹⁾를 울도국에 보내니, 하였으되,

“의병장(義兵將) 홍길동은 글월을 울도왕에게 부치느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지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천명을 받다 기병(起兵)²²⁾하매 먼저 철봉을 파(破)하고 물밀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불연즉(不然則)²³⁾ 일찍 항(降)²⁴⁾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하였더라. 왕이 남필(覽畢)²⁵⁾에 대경 왈,

“아국(我國)이 전혀 철봉을 믿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저당(抵當)²⁶⁾하리오.”

하고 제신을 거느려 항복하니,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안무하고 왕위(王位)에 직(職)²⁷⁾한 후, 울도왕으로 의령군을 봉하고 마숙, 최철로 좌우상(左右相) 삼고, 기여(其餘)²⁸⁾ 제장(諸將)²⁹⁾은 다 각각 봉작(抵當)³⁰⁾한 후, 만조백관이 천세(千歲)³¹⁾를 불러 하례(賀禮)³²⁾하더라.

왕³³⁾이 치국(治國)³⁴⁾ 삼 년에 산무도적(山無

1) 시어머니.

2) 시아주머니.

3) 깊이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름.

4) 크게 자람.

5) 출발함.

6)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7) 제사를 드림.

8) 삼년 상(喪).

9) 싸움하는 기술.

10) 병사가 잘 훈련되고 양식이 풍족함.

11) 기름진 들.

12) 적의 침입을 막기 쉬운 지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름진 땅으로 물산이 풍부해 살기 좋은 나라.

13) 일을 할 의향이나 뜻하는 바가 있음.

14) 정성을 다함.

15) 부대의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16) 우수하고 강한 군사.

17) 한 부대의 군사.

18) 한 차례의 접전(接戰).

19) 어루만져 위로함.

20) 지휘하여 움직임.

21) 사람을 부추기기 위해서 써 내는 글.

22) 군사를 일으킴.

23) 그렇지 않으면

24) 항복함.

25) 보기를 마침.

26) 대항함.

27) 모름.

28) 그 나머지.

29) 여러 장수

30) 공신이나 종친에게 작위를 내려 줌.

31) 오래 살기를, 축원할 때 외치는 말.

32) 축하하여 예를 차림.

盜賊)¹⁾하고 도불습유(道不拾遺)²⁾하니 가히 태평 세계라. 왕이 백룡을 불러

“내 조선 성상(聖上)께 표문(表文)³⁾을 올리려 하노니, 경은 수고를 아끼지 말라.”

하고, 표문과 서찰을 홍부(洪府)⁴⁾에 부치니라. 백룡이 조선에 득달(得達)⁵⁾하여 먼저 표문을 올리되, 상이 표문을 보시고 대찬(大讚)⁶⁾ 왈,

이 백룡을 불러 왈,

“홍길동은 짐짓 기재(奇才)⁷⁾로다.”

하시고, 홍인형으로 위유사(慰諭使)⁸⁾을 하이사⁹⁾ 유서(諭書)¹⁰⁾을 내리오시니, 인형이 사은한 후 돌아와 모부인에게 연중설화(筵中說話)¹¹⁾을 고하니, 부인이 또한 가려 하거늘, 인형이 마지 못하여 부인을 피시고 발행하여 여러 날 만에 율도국에 이르니, 왕이 맞아 향안(香案)¹²⁾을 배설(排設)¹³⁾하고 유서를 받자온 후 모부인과 인형으로 반기며, 산소에 소분(掃墳)¹⁴⁾한 후 대연(大宴)¹⁵⁾을 배설하여 즐기더라.

여러 날이 되매, 유씨 홀연 득병하여 졸(卒)¹⁶⁾하니, 선릉(先陵)에 쌍장(雙葬)¹⁷⁾하고, 인형이 왕을 하직하고 본국에 돌아 봉명(奉命)¹⁸⁾하오니, 상이 그 모상(母喪)¹⁹⁾ 당함을 위

유(慰諭)²⁰⁾하시더라.

차설, 율도왕이 삼상(三喪)을 마치매 대비(大妃)²¹⁾ 이어 기세(棄世)²²⁾하매, 선릉에 안장한 후 삼상을 마치매, 왕이 삼자이녀을 생하니, 장자(長子) 차자(次子)는 백씨 소생이요, 삼자(三子) 차녀(次女)는 조씨 소생이라. 장자 현으로 세자를 봉하고, 기여(其餘)는 다 봉군(封君)²³⁾하니라.

왕이 치국 삼십 년에 홀연 득병하여 붕(崩)²⁴⁾하니 수(壽)²⁵⁾이 칠십이 세라. 왕비 이어 봉하매 선릉(先陵)에 안장한 후, 세자가 즉위하여 대대로 계계승승(繼繼承承)²⁶⁾하여 태평으로 누리더라.

33) 홍길동

34) 나라를 다스림.

1) 산에 도적이 없음.

2) 백성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 않음.

3) 임금에게 표(表)로 올리던 글.

4) 홍씨택.

5) 도달.

6) 크게 칭찬함.

7) 아주 뛰어난 재주.

8) 천제지변이 있을 때나 외국 사신이 올 때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던 임시 벼슬.

9) 벼슬을 내리시어.

10) 간곡히 타이르는 글.

11) 임금과 신하가 모여 하는 이야기.

12) 제사 때 향로나 향합을 올려놓는 상.

13)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14) 춘추로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 지내던 일.

15) 큰 잔치.

16) 세상을 떠남.

17) 합장(合葬)함

18) 맡은 일을 다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것.

19) 유씨 부인의 장례.

20) 위로하고 달랠.

21) 춘섬.

22) 세상을 버림. 웃어른이 돌아가심을 이르는 말.

23) 군(君)으로 봉함.

24) 천자나 왕이 죽음.

25) 나이

26) 대대로 이어받음.

홍길동전

화설 도선국 세종도 시절의 혼 직상이 이시니, 성은 홍이오, 명은 피라. 디디 명문거족으로 쇼년등과하여 벼슬이 니쥬판서의 니르미, 물망이 도야의 웃듬이오, 충효겸비하기로 일흠이 일국의 진동하더라. 일즉 두 아들을 두어시니, 일즉는 일흠이 인형이니 명실 뉴시 쇼싱이오, 일즉는 일흠이 길동이니 시비 춘섬의 쇼싱이라.

선시의 공이 길동을 나홀 썩의 일뭉을 어드니, 문득 뇌정벽녀이 진동하며 청룡이 슈염을 거스리고 공의게 향하여 다라들거늘, 놀나 썩다르니 일장춘몽이라. 심중의 디회하여 싱각하되, ‘넉 이제 룡뭉을 어더시니 반드시 귀흔 즈식을 나흐리라.’ 하고, 즉시 넉당으로 드러가니, 부인 뉴시 니러 맞거늘, 공이 혼연이 그 옥슈를 낫그러 정이 친압고져 하거늘, 부인이 정식 왓,

“상공이 체위 존중하시거늘 년쇼경박즈의 비루함을 형코져 하시니, 첩은 봉형치 아니하리로쇼이다.”

하고, 언파의 손을 썩치고 나가거늘, 공이 가장 무류하여 분괴를 참지 못하고 외당의 나와 부인의 지식이 업스믈 한탄하더니, 맞춤 시비 춘섬이 츄를 올니거늘 그 고요함을 인하여 춘섬을 잇글고 협실의 드러가 정이 친압하니, 이썩 춘섬의 나히 십팔이라. 혼번 몸을 허흔 후로 문외의 나지 아니하고 타인을 취홀 썩이 업스니, 공이 괴특이 녀여 인하여 잉첩을 삼아더니, 과연 그 달뵈히 티기 잇서 십삭만의 일기 옥동을 싱하니, 괴골이 비범하여 진짓 영웅호걸의 괴상이라. 공이 일변 깃거하나 부인의게 나지 못함을 한하더라.

길동이 점점 즈라 팔세 되미, 총명이 과인하여 혼아홀 드르면 벱을 통하니, 공이 더욱 익중하나 근본 천성이라, 길동이 락양 호부호형하면 문득 꾸지져 못하게 하니, 길동이 십세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하고, 비복

등이 천디함을 각골통한하여 심스를 정치 못하더니, 쥬구월 망간을 당하미, 명월은 쥬요하고 청풍은 쇼슬하여 사름의 심회를 돕는지라, 길동이 셔당의셔 글을 넓다가 문득 셔안을 밀치고 탄왓,

“디장뷔 세상의 나미, 공명을 본밧지 못하면, 찰아리 병법을 외와 대장님을 요하의 빗기치고 동정셔벌하여, 국가의 디공을 세우고 일흠을 만디의 빗너미 장부의 쾌식라. 나는 엇지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형이 이시되 호부호형을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

하고 말을 맞으며 썩의 니려 검술을 공부하더니, 맞춤 공이 썩흔 월식을 구경하다가 길동의 비회함을 보고 즉시 불너 문왓,

“네 무슴 홍이 이셔 야심토록 잠을 즈지 아니하느냐?”

길동이 공경 디왓,

“쇼인이 맞춤 월식을 사랑하미여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녀시미 오직 사름이 귀하오나, 쇼인의게 니르러는 귀하오미 업스오니, 엇지 사름이라 하오리잇가?”

공이 그 말을 짐작하나, 짐짓 칙왓,

“네 무슴 말인고?”

길동이 직빅 고왓,

“쇼인이 평싱 설운 바는, 대감 정기로 당당하온 남지 되어스오미, 부싱모혹지은이 김습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엇지 사름이라 하오리잇가?”

하고, 눈물을 흘려 단삼을 적시거늘, 공이 청과의 비록 측은하나, 만일 그 썩을 위로하면 믱음이 방즈홀가 져어, 크게 꾸지져 왓,

“직상이 천비쇼싱이 비단 너썩이 아니여든, 네 엇지 방즈하미 이 갓하요? 츄후 다시 이런말이 이시면, 안전의 용납지 못하리라.”

하니, 길동이 감이 일언을 고치 못하고, 다만 복지유체썩이라. 공이 명하여 물너가라 하거늘, 길동이 침쇼로 도라와 슬허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길동이 본디 지극 과인하고, 도량이 활달한 지라,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밤이면 잠을 날우지 못하더니, 일일은 길동이 어미 침쇼의가 울며 고왈,

“쇼직 모친으로 더브러 전싱연분이 중하여 금세의 모직 되오니 은혜 망극하온지라. 그러나 쇼직의 팔직 기박하여 천흔 몸이 되오니 품은 한이 깊스온지라. 장뵈 세상의 처함 남의 천덕 바드리 불가하온지라, 쇼직 자연 기운을 억제치 못하여 모친 슬하를 썩나려 하오니, 복망 모친은 쇼즈를 넘너치 마르시고 귀체를 보중하쇼셔.”

그 어미 청파의 대경 왈,

“직상이 천싱이 너뿐이 아니여든, 엇지 험한 마음을 발하여 어미 간장을 살오느냐?”

길동이 되왈,

“넷날 장충의 으뜸 길산은 천싱이로되, 십삼세의 그 어미를 니별하고 운봉산의 드러가 도를 닦아 아름다운 일흠을 후세의 유전하여시니, 쇼직 그를 효측하여 세상을 버셔나려 하오니, 모친은 암심하사 후일을 기드리쇼셔. 근간 곡산모의 형식을 보니, 상공의 총을 닐홀가 하여 우리 모즈를 원슈갓치 아는지라, 큰화를 닐을가 하옵느니, 모친은 쇼직 나가를 넘너치 마르쇼셔.”

하니, 그 어미 쏘흔 슬허하더라.

원년 곡산모는 본디 곡산 기싱으로 상공의 총첩이 되어서니, 일흠은 쇼난이라. 가장 교만 방즈하여 제 심중의 불합하면 공의게 참쇼하니, 이러므로 가중페단이 무슈흔 중, 저는 으뜸들이 엽고 춘섬은 길동을 나아 상공이 미양귀히 녀이를 심중의 양양하여 업시홀물 도모하더니, 일일은 흥계를 싱각하고 무녀를 청하여 왈,

“나의 일신을 평안케 하든 이 곳 길동을 업시키의 잇는지라. 만일 나의 쇼원을 날우면 그 은혜를 후히 갑하리라.”

하니, 무네 듯고 갓거 되왈,

“지금 흥인문 밧기 일등 관상네 이시니, 사

람의 상을 한번 보면 전후 길흥을 판단하느니, 이 사람을 청하여 쇼원을 주시 니르고 상공기 천거하여 전후스를 본다시 고하면 상공이 필연 덕혹하사 그 은혜를 업시코져 하시리니, 그 썩를 타 여츠여츠하면 엇지 묘계 아니리잇고.”

쇼난이 대희하여 먼저 은주 오십 냇을 주며 상즈를 청하여 오라 하니, 무네 하직고 가니라.

잇흔날 공이 너당의 드러와, 부인으로 더브러 길동의 비범홀물 닐크르며 다만 천싱이를 한탄하고 정히 말슴하더니, 문든 혼 녀직 드러와 당하의 문안하거늘, 공이 고이히 녀여문왈,

“그디는 엇더흔 녀직완디 무슨 일노 왔느냐?”

그 녀직 왈,

“쇼인은 관상하기로 일습더니, 맞춤 상공 문하의 니르러느니이다.”

공이 츀언을 듯고 길동의 너스를 알고져 하여 즉시 불너 뵈니 상네 이윽히 보다가 놀나며 왈,

“이 공즈의 상을 보니 천고 영웅이요 일디 호걸이로되, 다만 지체 부족하오니 다르 넘너는 업슬가 하느이다.”

하고, 말을 니고져 하다가 주저하거늘, 공과 부인이 가장 고히 녀여 왈,

“무슨 말을 바른디로 니르라.”

상네 마지 못하여 좌우를 물니치고 왈,

“공즈의 상을 보온즉, 흥중의 조화 무궁하고 미간의 산천 정기 영농하오니 진짓 왕후의 기상이라, 장성하면 장춧 멸문지화를 당하오리니 상공은 살피쇼셔.”

공이 청파의 경외하여 묵묵반향의 막음을 정하고 왈,

“사람의 팔즈는 도망키 어렵거니와, 너는 이런 말을 누설치 말나.”

당부하고, 약간 은즈를 주어 보느니라.

츀후로 공이 길동을 산정의 머물게 하고 일

동일정을 엄숙히 살피니, 길동이 이 일을 당
 하되 더욱 설움을 이기지 못하나 흘길 없서
 육도삼약과 턴문지리를 공부하더니, 공이 이
 일을 알고 크게 근심하여 왓,

“이 놈이 본디 죄죄 이시미, 만일 범남흔 의
 슌을 두면 상녀의 말과 갓하리니, 이를 장차
 엇지 하리오?”

하더라.

이쎄, 초난이 무녀와 상즈를 교통하여 공의
 막음을 놀납게 하고 길동을 업시코져 하여,
 천금을 바려 즈직을 구하니 일흠이 특지라.
 전후스를 주시 니르고 초난이 공씩 고왓,

“일전 상네 아는 일이 귀신 갓하미, 길동의
 녀스를 엇지 처지하시느니잇가? 천첩도 놀납
 고 두려워하옵느니, 일즉 저를 업시홀만 갓시
 못하리로쇼이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눈섭을 찡긔여 왓,

“이 일은 너 장중의 이시니, 너는 번거이 구
 지 말나.”

하고 물니치나, 심식 즈연 산난하여 밤이면
 잠을 날우지 못하고 인하여 병이 된지라, 부
 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하여 아모리홀 줄
 모로더니, 초난이 껏히 되셔다가 고왓,

“상공 환회 위중하시믄 길동을 두시미라. 천
 혼 쇼견은 길동을 죽여 업시하면 상공의 병
 환도 쾌차할 썬 아녀 문호을 보존하오리니,
 엇지 이를 싱각지 아니시느릿고?”

부인 왓,

“아모리 그러나 턴눈이 지중하니 춤아 엇지
 흥하리오.”

초난 왓,

“듯조오니 특지라 하는 즈직이 이셔 사름
 죽이믄 낭중취물갓치 한다 하오니 천금을 주
 어 밤의 드러가 회하오면, 상공이 아르시나
 흘길 업스올리니, 부인은 직삼 싱각하쇼셔.”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녀 왓,

“이는 춤아 못홀 비로되, 췌지는 나라을 위
 하미오, 들지는 상공을 위하미오, 셋지는 흥문
 을 보존하미라. 너의 계교되로 흥하라.”

초난이 되회하여 다시 특지를 불녀 이 말을
 주시 니르고, 금야의 급이 흥하라 하니, 특지
 응낙고 밤 들기를 기다리더라.

초설, 길동이 그 원통흔 일을 싱각하미 시
 직을 머무지 못홀 일어로되, 상공의 엄명이
 지중하므로 흘길 업서 밤이면 잠을 날우지 못
 하더니, 초야의 촉을 밝히고 주역을 잠심하
 가, 문득 드르니 까마귀 세 번 울고 가거늘,
 길동이 고이히 녀여 혼즈말노 니르되,

“이 잠싱은 본디 밤을 썬리거늘, 이제 울고
 가니 심이 불길하도다.”

하고, 잠간 팔괘를 버려 보고 되경하여 서
 안을 물니치고 둔갑법을 흥하여 그 동정을 살
 피더니, 사정은 하여, 혼 사름이 비슈를 들고
 완완이 방문을 열고 드러오느니라, 길동이 급
 히 몸을 감초고 진언을 녀하니, 홀연 일진음
 풍이 니러나며 집은 간디 업고 첩첩흔 산중의
 풍경이 거록흔지라. 특지 대경하여 길동의 조
 회 신기하믄 알고 비슈를 감초아 피코져 하
 니, 문득 길이 쓴쳐지고 층암절벽이 가리와시
 니 진퇴유곡이라, 사면으로 방황하더니 문득
 저쇼리 들리거늘 정신을 찰혀 살펴보니 일위
 쇼동이 나귀를 타고 오며 저 불기를 굶치고
 꾸지져 왓,

“네 무슴 일노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죄흔
 사름을 회하면 엇지 턴잉이 업스리오?”

하고 진언을 녀하더니, 홀연 일진흑운이 니
 러나며 큰 비 붓드시 오고 사색이 날니거늘,
 특지 정신을 슈습하여 살펴보니 길동이라. 비
 록 그 직조를 신기히 녀이나, ‘엇지 나를 되적
 하리오.’ 하고 다라들며 대호 왓,

“너는 죽어도 나를 원치 말나. 초난이 무녀
 와 상즈로 하여곰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
 려 하미니, 엇지 나를 원망하리오.”

하고 칼을 들고 다라들거늘, 길동이 분기를
 춤지 못하여 요술노 특지의 칼을 아셔들고 되
 미 왓,

“네 직물을 탐하여 사름 죽이믄 조히 녀이
 니 너 갓흔 무도흔 놈을 죽여 후환을 업시하

리라.”

“호고 흥번 칼할 드니, 특지의 머리 방중에 내려지는지라. 길동이 분괴를 이기지 못하여 이 밤의 바로 상녀를 잡아 특지 죽은 방의 드리치고 꾸지져 왓,

“네 날노 더브러 무슨 원썬 잇관디 초난과 혼가지로 나를 죽이려 호더냐?”

호고 버히니 엇지 가련치 아니호리오.

이썬, 길동이 낭인을 죽이고 건상을 살펴보니, 은하슈는 서호로 기우러지고 월식은 희미하여 슈회를 돕는지라. 분괴를 참지 못하여 또 초난을 죽이고져 호다가, 상공이 사랑호시믈 썬닷고 칼할 더지며 망명도싱호믈 싱각호고, 바로 상공 침쇼의 나아가 하직을 고코져 호더니, 이썬 공이 창외의 인적 이시믈 고이히 녀여 창을 열고 보니 이 곳 길동이라. 인견 왓,

“밤이 깊허거늘 네 엇지 자지 아니호고 이리 방황호는다?”

길동이 복지 디왓,

“쇼인이 일즉 부싱모혹지은을 만분지일이나 갑흘가 호여더니, 가늌의 불의지인이 잇스와 상공과 침쇼호고 쇼인을 죽이려 호오믹, 계오 목숨은 보전호여스오나, 상공을 피실 길 업습기로 금일 상공과 하직을 고흐느나이다.”

호거늘, 공이 디경 왓,

“네 무슨 변괴 잇관디 어린 호히 집을 브리고 어디로 가려 호는다.”

길동이 디왓,

“날이 붉으면 즈연 아르시련이와, 쇼인의 신세는 부운과 갓스오니, 상공의 바린 즈식이 엇지 방쇼를 두리잇고.”

호며 쌍뉘 종횡호여 말을 일우지 못호거늘, 공이 그 형상을 보고 측은이 녀여 기유 왓,

“너 너의 품은 한을 짐작호느니, 금일노릇허 호부호형호믈 허호노라.”

길동이 직벽 왓,

“쇼즈의 일편지한을 야애 푸러 주옵시니 죽어도 한이 업도쇼이다. 복망, 야야는 만슈무강

호옵쇼셔.”

호고 직벽 하직호니, 공이 붓드지 못호고 다만 무스호믈 당부호더라. 길동이 또 어미 침쇼의 가 니별을 고흐여 왓,

“소지 지금 슬하를 썬나오믹 다시 피실 날이 잇스오리니, 모친은 그 스이 귀체를 보중호쇼셔.”

춘낭이 이 말을 듯고, 무슨 변괴 이시믈 짐작호나, 호즈의 하직호믈 보고 집슈 통곡 왓,

“네 어디로 향코져 호는다? 호 집의 이셔도 처쇼 초간호여 미양 연연호더니, 이제 너를 정처 업시 보너고 엇지 이즈리오. 너는 슈이 도라와 모직 상봉호믈 바라노라.”

길동이 직벽 하직호고 문을 나미, 운산이 첩첩호여 지향 업시 횡호니 엇지 가련치 아니리오.

츠셜, 초난이 특지의 쇼식 업스믈 십분 의 호호여 스기를 탐지호니, 길동은 간디 업고 특지의 죽엄과 계집의 시신이 방중의 잇다 호거늘 초난이 혼비백산호여 급히 부인과 고흐디, 부인이 호호 디경호여 좌랑을 불너 이 일을 닐으며 상공과 고흐니, 공이 디경실식 왓,

“길동이 밤의 와 슬피 하직호믈 가장 고흐히 녀여더니, 이 일이 잇도다.”

좌랑이 감히 은회치 호호여 초난의 실스를 고흐디, 공이 더욱 분노호여 일변 초난을 너치고, 가마니 그 시체를 업시호며, 노복을 불너 이런 말을 너지 말라 당부호더라.

각셜, 길동이 부모를 니별호고 문을 나미, 일신이 표박호여 정처 업시 횡호더니, 호 곳의 다다르니 경기 절승호지라, 인가를 츠즈점점 드러가니, 큰 바회 밋히 석문이 닳쳐거늘 가마니 그 문을 열고 드러가니, 평원광야의 슈빅 호 인기 즐비호고 여러 사름이 모다 잔치호며 즐기니, 이곳은 도적의 굴혈이라.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위인이 녹녹지 아니믈 반겨 문왓,

“그디는 엇던 사름이완디 이곳의 츠즈왔느뇨? 이곳은 영웅이 모도여시나 아직 괴슈를

정치 못하여시니, 그딴 만일 용녀이 이셔 춤
녀코져 홀진디 저 돌을 드러보라.”

길동이 이 말을 듣고 다행하여 직비 왈,

“나는 경성 홍판서의 천첩 쇼싱 길동이라니,
가죽천디를 밋지 아니려 하여 사희팔방으로
정처 업시 단니더니, 우연이 이곳의 드러와
모든 호걸의 동노되물 니르시니, 불승감사하
거니와 장뷔 엇지 저만흔 돌 들기를 근심하리
오.”

하고, 그 돌을 드러 슈십 보를 행하다가 더
지니 그 돌 무귀 천 근이라, 제적이 일시의
칭찬 왈,

“과연 장식로다. 우리 슈천 명 중의 이 돌
들 직 업더니, 오날날 하늘이 도오샤 장군을
주시미로다.”

하고 길동을 상좌의 안치고, 술을 차례로
권하고 빅마 죽아 밍세하며 언약을 굳게 하
니, 중인이 일시의 응낙하고 종일 즐기더라.
이후로 길동의 제인으로 더브러 무예를 연습
하여 슈월지너의 군법이 정제흔지라. 일일은
제인이 니르되,

“아등이 밋셔 합천 해인사를 쳐 그 직물을
탈취코져 하나, 지락이 부족하여 거조를 밋지
못하여더니, 이제 장군의 의향이 엇더하시잇
고?”

길동이 쇼왈,

“넌 장춘 발군하리니, 그딴등은 지휘디로 하
라.”

하고, 청포흑디의 나귀를 타고 종주 슈인을
다리고 나가며 왈,

“넌 그 절의 가 동정을 보고 오리라.”

하고 가니, 완연흔 직상가 즈제라. 그 절의
드러가 먼저 슈승을 불너 니르되,

“나는 경성 홍판서딴 즈제라. 이 절의 와 글
공부 하라 왔거니와 명일의 빅미 이십 석을
보낼 거시니, 음식을 정히 찰이면 너의들노
한가지로 먹으리라.”

하고, 사중을 두루 살펴보며 후일을 기약하
고 동구를 나오니, 제승이 깃거하더라. 길동이

도라와 빅미 슈십 석을 보내고 중인을 불너
왈,

“넌 아모날은 그 절의 가 이리이리 하리니,
그딴등은 뒤힐 쫓츠와 이리이리 하라.”

하고, 그날을 기다려 종주 슈십 인을 다리
고 회인사의 니르니, 제승이 마즈 드러가니,
길동이 노승을 불너 문왈,

“넌 보닌 쌀노 음식이 부족지 아니하더뇨?”

노승 왈,

“엇지 부족하리잇가. 너무 황감하여이다.”

길동이 상좌의 안고 제승을 일제이 청하여
각기 상을 밋게 하고, 먼저 술을 마시며 차례
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황감하여 하더라. 길동
이 상을 밋고 먹더니, 문득 모락을 가마니 닢
의 너코 씌무니, 그 쇼릭 큰지라, 제승이 듯고
놀나 사피하거늘 길동이 거죽 디로하여 꾸지
져 왈,

“너희등이 엇지 음식을 이다지 부정케 하
뇨? 이는 반다시 능멸하미라.”

하고, 종주의게 분부하여 제승을 다 혼 줄
이 결박하여 안치니, 사중이 황겁하여 아무리
할 줄 모로논지라. 이윽고 대적 슈씩여 명이
일시의 다라드러 모든 직물을 다 제 것 가져
가듯 하니, 제승이 보고 다만 닢으로 쇼릭만
지를 썩음이라. 이썩 불목한이 맞춤 나갓다가
이런 일을 보고 즉시 관가의 고평하니, 합천 원
이 듯고 관군을 쏘발하여 그 도적을 잡으라
하니, 수빅 장교 도적의 뒤힐 쫓출시 문득 보
니, 혼 중이 송낙을 쓰고 쏘 장삼 닢고 피의
올나 웨여 왈,

“도적이 저 북편 쇼로로 사니 썰니 가 잡으
쇼셔.”

하거늘, 관군이 그 절 중이 가르치는 슈를
알고 풍우갓치 북편 쇼로로 츄즈 가다가 날이
저문 후 잡지 못하고 도라가니라.

길동이 제적을 남편 디로로 보내고 제 홀노
중의 복식으로 관군을 속여 무스히 굴헐노 도
라오니, 모든 사림이 밋셔 직물을 슈탐하여
왔논지라, 일시의 나와 사레하거늘 길동이 쇼

왈,

“장뵈 이만 죄죄 업스면 엇지 중인의 괴슈 되리오.”

호더라.

이후로 길동이 조호를 활빈당이라 호여 도선 팔도로 단니며 각읍 슈령이 불의로 죄물이 이시면 탈취호고, 혹 지빈무의호 죄 이시면 구제호며 복성을 침범치 아니호고, 나라의 속호 죄물은 추호도 범치 아니호니, 이러므로 제적이 그 의취를 항복호더라.

일일은 길동이 제인을 모호고 의논 왈,

“이제 함경 감식 탐관오리로 준민고혹호여 복성이 다 건디지 못호는지라. 우리등이 그제 두지 못호리니, 그디등은 나의 지휘되로 호라.”

호고, 혼아식 홀녀 드러가 아모날 밤의 기약을 정호고 남문 밧기 불을 지르니, 감식 디경호여 그 불을 구호라 호니, 관속이며 복성드리 일시의 낙다라 그 불을 구호시, 길동의 슈빅 적당이 일시의 성중의 다라드러 창고를 열고 전곡과 군기를 슈탐호여 복문으로 다라나니, 성중이 요란호여 물썰뚝호는지라. 감식 불의지변을 당호여 아모리 홀 줄 모로더니, 날이 붉은 후 살펴보니 창고의 군기와 전곡이 뷔여거늘, 감식 디경실식호여 그 도적 잡기를 힘쓰더니, 홀연 복문의 방을 붓쳐시되, ‘아모날 전곡 도적호는 조는 활빈당 형슈 홍길동이라.’ 호엿거늘, 감식 발군호여 그 도적을 잡으려 호더라.

츠셜, 길동이 제적과 호가지로 전곡을 만히 도적호여시나 형혀 길의서 잡힐가 념녀호여 둔갑법과 축지법을 형호여 처소의 도라오니 날이 식고져 호여더라.

일일은 길동이 제인을 모호고 의논 왈,

“이제 우리 함천 허인사의 가 죄물 탈취호고, 또 함경 감영의 가 전곡을 도적호여 소문이 파다호련니와, 나의 성명을 써 감영의 붓쳐시니 오리지 아니호여 잡히기 쉬울지라, 그디등은 나의 죄조를 보라.”

호고, 즉시 초인 일곱을 민드러 진언을 념호고 혼벽을 붓치니, 일곱 길동이 일시의 팔을 쏘니며 크게 소리고 호 곳의 모다 난만이 슈작호니, 어너 거시 정길동인지 아지 못호는지라. 팔도의 혼아식 호터지되 각각 사름 슈빅여 명식 거느리고 단니니, 그 중의도 정길동이 어너 곳의 잇는 줄 아지 못호네라. 여덟 길동이 팔도의 단니며 호풍환우호는 술법을 형호니, 각읍 창곡이 일야간의 종적 업시가져가며 서울 오는 봉물을 의심 업시 탈취호니, 팔도 각읍이 쇼요호여 밤의 능히 잠을 조지 못호고 도로의 형인이 쓴쳐시니, 이러므로 팔도 요란호지라. 감식 이 일노 장계호니 디강호여시되,

“난디업는 홍길동이란 대적이 이셔 능히 풍운을 짓고 각읍의 죄물을 탈취호오며 봉송호는 물종이 올라가지 못호여 작난이 무슈호오니, 그 도적을 잡지 못호오면 장춧 어너 지경의 니를 줄 아지 못호오리니, 복망 성상은 죄우포청으로 잡게 호쇼셔.”

호여더라.

상이 보시고 대경호샤 포장을 명초호실시연호여 팔도 장계를 올니는지라, 연호여 썬혀보시니 도적의 일홈이 다 홍길동이라 호엿고, 전곡 일흔 일즈를 보시니 호 날 호 시라. 상이 크게 놀나샤 골○샤되,

“이 도적의 용밍과 술법은 넷날 치위라도 다아지 못호리로다. 아모리 신기호는 놈인들 엇지 호 몸이 팔도의 잇셔 호 날 호 시의 도적호리오? 이는 심상호는 도적이 아니라 잡기 어려오리니, 좌우포장이 발군호여 그 도적을 잡으라.”

호시니, 이썬 우포장 니홈이 주왈,

“신이 비록 죄죄 업스오나 그 도적을 잡아오리니, 전하는 근심 마로쇼셔. 이제 좌우포장이 엇지 병출호올이잇가.”

상이 울히 녀이샤 급히 발형호를 죄촉호시니, 니홈이 하직호고 허다 관졸을 거느리고 발형호시 각각 호터져 아모날 문경으로 모도

이를 약속하고 니홉이 약간 포졸 슈삼 인을
다리고 변복하고 단니더니, 일일은 날이 저물
되 쥬점을 차고 쉬더니, 문득 일위 쇼년이 나
귀를 타고 드러와 뵈거늘, 포장이 답네흔디,
그 쇼년이 문득 한숨지며 왈,

“보천지하이 막비왕토요, 솔토지민이 막비왕
신이라 하니, 쇼성이 비록 향곡의 이시나 국
가를 위하여 근심이로쇼이다.”

포장이 거웃 놀나며 왈,

“이 엇지 니르미뇨?”

쇼년 왈,

“이제 홍길동이란 도적이 팔도로 단니며 작
난하미 인심이 소동호오니 이 놈을 잡아 업시
치 못호오니, 엇지 분한치 아니리오.”

포장이 이 말을 듣고 왈,

“그 덕 괴골이 장덕하고 언에 충직하니 날
과 혼가지로 그 도적을 잡으미 엇더호요?”

쇼년 왈,

“넌 밧서 잡고져 하나 용녀 잇는 사름을 엇
지 못호여더니, 이제 그덕을 만나시니, 엇지
만행이 아니리오마는, 그덕 직조를 아지 못하
니 그웁흔 곳의 가 시험하자.”

하고 혼가지로 행하더니, 혼 곳의 니르러
놓흔 바회 우회 올라안즈며 이르되,

“그덕 힘을 다하여 두 밧노 나를 차 나리치
라.”

하고, 낭 쫓히 나아 안거늘 포장이 싱각하
되,

“제 아모리 용녀이 이신들 한번 차면 제 엇
지 아니 썩러지리오.”

하고 평싱 힘을 다하여 두 밧노 밧오 차니,
그 쇼년이 문득 도라안즈며 왈,

“그덕 진짓 장식으로다. 넌 여러 사름을 시험
하되, 나를 요동하논 직 업더니, 그 덕에게 친
하여 오장이 울닌 듯호도다. 그덕 나를 싸라
오면 길동을 잡으리라.”

하고 첩첩흔 산곡으로 드러가거늘, 포장이
싱각하되,

“나도 힘을 자랑할 만하더니, 오날 저 쇼년

의 힘을 보니, 엇지 놀납지 아니리오. 그러나
이곳거지 와시니 혈마 저 쇼년 혼즈라도 길동
잡기를 근심하리오.”

하고 썩라가더니, 그 쇼년이 문득 돌쳐 서
며 왈,

“이곳이 길동의 굴혈이라. 넌 문져 드러가
탐지할 거시니 그딴는 여괴이셔 기다리라.”

초장이 막음의 의심되나, 썰니 잡아오물 당
부하고 안즈더니, 이윽고 홀연 산곡으로 쫓쳐
슈삼 군졸이 요란이 소리 지르며 내려오는지
라, 포장이 덕경하여 피코져 하더니, 점점 갓
가이 와 포장을 결박하여 꾸지져 왈,

“네 포도덕장 니홉인다? 우리등이 지부왕
명을 바다 너를 잡으러 왔다.”

하고 철삭으로 목을 올라 풍우갓치 모라가
니, 포장이 혼불부체하여 아모론 줄 모로는지
라. 혼 곳의 다다라 소리 지르며 썰녀 안치거
늘, 포장이 정신을 가다듬어 치미러 보니, 궁
궐이 광대흔디 무슈흔 황건녁식 좌우의 나열
하고, 전상의 일위 군왕이 좌탑의 안자 여성
왈,

“네 요마필부로 엇지 홍장군을 잡으려 하는
고? 이러므로 너를 잡아 풍도섬의 가도리라.”

포장이 계오 정신을 출여 왈,

“쇼인은 인간의 혼미흔 사름이라, 무죄이 잡
혀 왔시니, 살녀 보너를 브라노이다.”

하고 심이 익결하거늘 전상의셔 우슴 소리
나며 꾸지져 왈,

“이 사름아! 나를 차시 보라. 나는 곳 활빈
당 형슈 홍길동이라, 그덕 나를 잡으려 하미,
그 용녀과 쫓을 알고져 하여, 작일의 넌 청포
쇼년으로 그덕을 인도하여 이곳의 와 나의 위
엄을 뵈게 하미라.”

하고, 언과의 좌우를 명하여 밧 거슬 글너
당의 안치고 술을 나와 권하며 왈,

“그딴는 부절업시 단니지 말고 썰니 도라가
되, 나를 보았다 하면 반다시 죄책이 이실 거
시니, 부디 이런 말을 너지 말나.”

하고, 다시 술을 부어 권하며 좌우로 명하

여 너여보니라 하니, 포장의 심각하되, ‘너가 이거시 썸인가 상인가? 엇지하여 이리 왔시며’, 길동의 조화를 신기히 너여 니러 가고져 하더니, 홀연 스지를 요동치 못하느니라, 고히 너여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가족부딪 속의 드러거늘 간신이 나와 본즉, 부딪 세이 남과 걸너거늘 차례로 글너 너여 보니, 처엄 썸날 제 다리고 왔던 하인이라, 서로 니르되,

“이거시 엇진 일인가? 우리 썸날 제 문경으로 모히즈 하여더니, 엇지 이곳의 왔노고?”

하고 두로 살펴보니, 다른 곳 아니오 장안 성 북악이라. 사인이 어이업서 장안을 구버보며 하인다려 일너 왈,

“너는 엇지 이곳의 왔노?”

삼인이 고왈,

“쇼인들은 주점의서 즈옵더니, 홀연 풍운의 쓰이여 이리 왔스오니, 무슨 년고를 아지 못하미로쇼이다.”

포장 왈,

“이 일이 가장 허무밍낭하니 남의게 전설치 말나. 그러나 길동의 직죄 불측하니 엇지 인척으로써 줍으리요. 우리들이 이제 그져 드러 가면 필경 죄를 면치 못하리니, 아직 슈월을 기다려 드러가즈.”

하고 내려오더라.

츠시, 상이 팔도의 횡관하사 길동을 줍으라 하시되, 그 변해 불측하여 장안 대로로 흑 초헌도 타고 왕니하며, 흑 각읍의 노문 노코 쌍교도 타고 왕니하며, 흑 어스의 모양을 하여 각읍 슈령 중 탐관오리하는 자를 문득 선참후계하되 가어스 홍길동의 계문이라 하니, 상이 더욱 진노하사 왈,

“이 놈이 각도의 단니며 이런 작난을 하되, 아모도 줍지 못하니, 이를 장춧 엇지 하리오.”

하시고 삼공육경을 모와 의논하시더니, 연하여 장계 오르니 다 팔도의 홍길동이 작난하는 장계라. 상이 차례로 보시고 크게 근심하사 좌우를 도라보시며 문왈,

“이 놈이 아마도 사름은 아니요, 귀신의 작

폐니, 도신 중 뉘 그 근본을 짐작하리오?”

일인이 출반 주왈,

“홍길동은 전님 니조판서 홍모의 셔조오, 병조좌랑 홍인형의 셔제오니, 이제 그 부즈를 나리하여 친문하시면 즈연 아르실가 하느니라.”

상이 익노 왈,

“이런 말을 엇지 이제야 하느?”

하시고, 즉시 홍모는 금부로 나슈하고, 먼저 인형을 줍아드려 친국하실식, 텃위 진노하사 셔안을 쳐 글으사되,

“길동이란 도적이 너의 셔제라 하니, 엇지 금단치 아니하고 그져 두어 국가의 대환이 되게 하느뇨? 네 만일 줍아 드리지 아니하면, 너의 부즈의 충효를 도라보지 아니리니, 썰니 줍아 드려 도선 대변을 업게 하라.”

인형이 황공하여 면관돈슈 왈,

“신의 천후 아이 이셔 일즉 사름을 죽이고 망명도주하온 지 슈년이 지나오되, 그 존망을 아옵지 못하와 신의 늙은 아비 일노 인하여 신병이 위중하와 명지조석이온 중, 길동의 무도불측하므로 성상의 근심을 끼치오니, 신의 죄 만스무척이오니, 복망, 전하는 즈비지탁을 드리옵서 신의 아비 죄를 샤하사, 집의 도라가 죠병케 하시면, 신이 죽기로써 길동을 줍아 신의 부즈의 죄를 속하올가 하느이다.”

상이 문파의 텃심이 감동하사, 즉시 홍모를 샤하시고 인형으로 경상감스를 제슈하사 왈,

“경이 만일 감스의 괴구 업스면 길동을 줍지 못할 거시오, 일년 한을 정하여 주느니 슈이 줍아 드리라.”

하시니, 인형이 빅빅 샤은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즉일 발행하여 감영의 도입하고 각읍의 방을 붓치니, 이는 길동을 달너는 방이라. 기스의 왈,

“사름이 세상의 나뭇 오륜이 웃듬이어, 오륜이 이시미 인의네지 분명하거늘, 이를 아지 못하고 군부의 명을 거역하여 불충불효 되면, 엇지 세상의 용납하리오. 우리 아오 길동은

이런 일을 알 거시니 스스로 형을 찌죽와 사로잡히라. 우리 부친이 널 노 말미암아 병넙골 슈헝시고, 성상이 크게 근심헝시니, 네 죄악이 관영헝지라. 이러므로 나를 특별이 도박을 제 슈헝샤 너를 잡아 드리라 헝시니, 만일 잡지 못헝면 우리 홍문의 누덕 청덕이 일쥔의 멸헝리니, 엇지 슬푸지 아니리오. 브라느니 아오 길동은 일쥔 생각헝여 일쥔 자현헝면 너의 죄도 덜닐 거시오 일문을 보존헝리니, 아지 못게라. 너는 만 번 생각헝여 즈현헝라.”

헝엇더라. 감식 이 방을 각읍의 붓치고 공소를 전파헝여 길동이 즈현헝기만 기다기더니, 일일은 혼 소년이 나귀를 타고 하인 슈십을 거느리고 원문 밧과 와 뵈오를 청헝다 헝거늘, 감식 드러오라 헝니, 그 소년이 당상의 올라 비알헝거늘, 감식 눈을 드러 즈시 보니 석로 기다리던 길동이라. 대경대회헝여 좌우를 물니치고 그 손을 잡아 오열유체 왈,

“길동아, 네 혼번 문을 나뉘 사싱존망을 아지 못헝여 부친계서 병입고항헝시거늘, 너는 가지록 불효를 끼칠 쏘 아녀 국가의 큰 근심이 되게 하니, 네 무슴 므음으로 불충불효를 헝헝며, 쏘 혼 도적이 되어 세상의 비치 못헝죄를 헝는다? 이러므로 성상이 진노헝샤 날노헝여곰 너를 잡아 드리라 헝시니, 이는 피치 못헝 죄라. 너는 일쥔 경스의 나아가 텃명을 순슈헝라.”

헝고 말을 맞즈며 눈물이 비오듯 헝거늘,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왈,

“천싱이 이의 니르믄 부형의 위턱헝를 구코져 헝미니, 엇지 다른 말이 이시리오. 덕져 덕감계서 당초의 천헝 길동을 위헝여 부친을 부친이라 헝고 형을 형이라 헝여던들 엇지 이의 니르리잇고? 왕스는 일너 쓸디업거니와 이제 쇼제를 결박헝여 경스로 올너 보느쇼셔.”

헝고 다시 말이 업거늘, 감식 이 말을 듯고 일변 슬허헝며 일변 장계를 써 길동을 항쇄죽쇄헝고 함거의 시러 건장헝 장교 십여 인을 썩 압영헝게 헝고 쥬야 비도헝여 올너 보느

니, 각읍 빅성드리 길동의 직조를 드려는지라, 잡아오를 듯고 길어 머여 구경헝더라.

츠시, 팔도의셔 다 길동을 잡아 올니니, 도정과 장안 인민이 망지쇼쥔헝여 능히 알 니 업더라. 상이 놀나샤 만조를 모호시고 친국헝실시, 녀름 길동을 잡아 올니니 저의 셔로 닷토아 니르되,

“네가 정길동이오 나는 아니라.”

헝며 셔로 싸호니, 어닉 거시 정길동인지 분간치 못헝네라. 상이 고이히 녀이샤 즉시 홍모를 명쥔헝샤 왈,

“지즈는 막여뵈라 헝니, 저 여름 중의 경의 으뜸을 츠즈너라.”

홍공이 황공헝여 돈슈청죄 왈,

“신의 천싱 길동은 좌편 다리의 불근 혈점이 잇스오니, 일노 쥔츠 알니로쇼이다.”

헝고 여름 길동을 꾸지져 왈,

“네 지척의 님군이 계시고 아기로 네 아비 잇거늘, 이럿툐 천고의 업는 죄를 지어시니 죽기를 앓기지 말나.”

헝고 피를 토헝며 업더져 괴절헝니, 상이 대경헝샤 약원으로 구헝라 헝시되, 츠되 업는지라, 여름 길동이 이 경상을 보고 일시의 눈물을 흘니며 낭중으로 쥔츠 환약 일 기식 녀여 님의 드리오니, 홍공이 반향 후 정신을 츠리는지라.

길동등이 상게 쥬왈,

“신의 아비 국은을 만히 님어스오니, 신이 엇지 감히 불충헝 헝스를 헝을잇가마는, 신은 본디 천비 쇼싱이라, 그 아비를 아버지라 못헝웁고 그 형을 형이라 못헝오니, 평싱 한이 밋쳐슈기로 집을 바리고 적당의 춤네헝오나 빅성은 쥬호 불범헝웁고 각읍 슈령의 준민고턱헝는 직물을 탈취헝여스오나, 이제 십년을 지닉면 묘션을 썩나 가을 곳이 잇스오니, 복걸, 성상은 근심치 마르시고 신을 잡는 관즈를 거두웁쇼셔.”

헝고 말을 맞즈며, 여름 길동이 일시의 너머지니, 즈시 본즉 다 쇼인이라. 상이 더욱 놀

나시며 정길동 잡기를 다시 형관하여 팔도의 나리시니라.

츠셜, 길동이 초인을 업시하고 두로 단니더니 사대문의 방을 붓쳐시되,

“요신 홍길동은 아모리 하여도 잡지 못하리니, 병조판서 교지를 나리시면 잡히리이다.”

하엿거늘, 상이 그 방문을 보시고 도신을 모하 의논하시니, 제신 왈,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옵고 도로혀 병조판서 제수하시든 불가스문어 인국이로쇼이다.”

상이 올히 녀이샤 다만 경상 감식의게 길동 잡기를 직촉하시더라.

이썩 경상 감식 업지를 보고 황공송을하여 엿지홀 줄 모로더니, 일일은 길동이 공중으로 나리와 절하고 왈,

“쇼제 지금은 정작 길동이오니, 형장은 아모 넘너 마로시고 쇼제를 결박하여 경스로 보닉 쇼셔.”

감식 이 말을 듯고 집수유체 왈,

“이 무거운 아히야! 너도 날과 동귀여늘 부형의 교훈을 듯지 아니하고 일국이 쇼동케 하니, 엿지 익롭지 아니리오. 네 이제 정작 몸이와 나를 보고 잡혀 가기를 즈원하니 도로혀 괴특흔 으히로다.”

하고, 급히 길동의 좌편 다리를 보니, 과연 흠점이 잇거늘, 즉시 스지를 각별 결박하고 함거의 너허 건장흔 장교 슈십을 갈히여 철통 갖치 썩고 풍우 갖치 모라 가되, 길동의 안식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더라. 여러 날만의 경성의 다다르니 쥬문의 니르러는 길동이 한번 몸을 요동하미 철삭이 싣혀지고 함께 썩여져 맛치 밍얍이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표연이 운무의 못쳐 가니, 장교와 제군이 어이업서 공중만 바라보고 다만 녀슬 일홀 썩름이라. 홀 슈 업서 이 연유로 상달하온듯, 상이 드르시고 왈,

“천고의 일런 일이 어딴 이시리오.”

하고 크게 근심하시니, 제신 중 일인이

쥬왈,

“그 길동의 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닌면 도션을 썩나리라 하오니, 한번 제 원을 풀면 제 스스로 샤은하오리니, 이썩를 타 잡으미 조홀가 하느이다.”

상이 올히 녀이샤 즉시 홍길동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시고 사문의 방을 붓치니라.

이썩 길동이 이 말을 듯고 즉시 사모관당의 셔썩 썩고 놓흔 초헌을 헌거롭게 놓히 타고 대로상의 완연이 드러오며 니르되,

“이제 홍판서 샤은하라 온다.”

하니, 병조하속이 마즈 호위하여 쥬년의 드러갈식, 빅관이 의논하되,

“길동이 오늘 샤은하고 나올 거시니, 도부슈를 밍복하엿다가 나오거든 일시의 쳐 죽이라.”

하고 약속을 정하여더니, 길동이 쥬년의 드러가 속비하고 쥬왈,

“쇼신이 죄악이 지중하옵거늘 도로혀 텃은을 넘스와 평싱 한을 푸옵고 도라가오나, 영결 전하하오니, 복망, 성상은 만슈무강하쇼셔.”

하고 말을 맞츠며, 몸을 공중의 소소와 구름의 쓰이여 가니, 그 가는 바를 아지 못홀너라. 상이 보시고 도로혀 츠탄 왈,

“길동의 신기흔 직쥬는 고금의 회한하도다. 제 지금 도션을 썩나노라 하여시니, 다시는 작폐홀 길 업슬 거시오, 비록 슈상하나 일단 장부의 쾌흔 밍음이 잇는지라 죽히 넘너 업슬 낫다.”

하고, 팔도의 사문을 녀리와 길동 잡는 공스를 거두시니라.

각셜, 길동이 제 곳의 도라와 제적의게 분부하되,

“너 단녀올 곳이 이시니, 녀등은 아모딴 출납 말고 너 도라오기를 기다리라.”

하고, 즉시 몸을 소소와 남경으로 향하여 가다가 혼 곳의 다다르니, 이는 소위 룰도국이라. 사면을 살펴보니 산천이 청슈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가히 안신흔 곳이라 하고, 남경

의 드러가 구경하며 또 제도라 하는 섬중의 드러가 두로 단니며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살피며 단니더니, 오봉산의 니르러는 진짓 제일강산이라. 주회 칠백 니오 옥야답이 가득하여 살기의 정이 의함흔지라. 너심의 혜오되, ‘네 임의 도선을 하직하여시니, 이곳의 와 아직 은거하여다가 대수를 도모하리라.’ 하고, 표연이 본 곳의 도라와 제인다려 일너 왈,

“그딕 아모날 양천강 변의 가 비를 만히 지어 모월 모일의 경성 한강의 덕령하라. 너 님 군기 청하여 정조 일천 석을 구득하여 올 거시니 괴약을 어기지 말나.”

하더라.

각설, 홍공이 길동이 작난 업스므로 신병이 쾌차하고, 상이 또한 근심 업시 지닌더니, 차시 추구월 망간의 상이 월식을 썩여 후원의 비회하실시,

문득 일진청풍이 내려나며 공중으로서 옥저 소리 청아한 가온디 한 소년이 내려와 상과 복지하거늘, 상이 경문 왈,

“선동이 엇지 인간의 강굴하여 무슨 일을 니르고져 하느뇨?”

소년이 복지 주왈,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으로되다.”

상이 경문 왈,

“네 엇지 심야의 은다?”

길동이 덕왈,

“신이 전하를 밋드려 만세를 피올가 하오나, 천비쇼칭이라 문으로 옥당의 막히옵고 무로 선천의 막일지라, 이러므로 스방의 소유와 관부와 작폐하고 도정의 득죄하오문 전히 으르시게 하오러미더니, 신의 쇼원을 푸러 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도선을 써나가오니, 북망, 전하는 만슈무강하쇼셔.”

하고, 공중의 올라 표연히 거거늘, 상이 그 직조를 못너 칭찬하시더라. 이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업스미, 스방이 텅평하더라.

각설, 길동이 도선을 하직고 남경 싸 제도 섬으로 드러가, 슈천 호 집을 짓고 농업을 힘

쓰고 직도를 미화 무고을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정양축하더라.

일일은 길동이 살축의 바를 낚을 어드러 망당산으로 향하더니, 낙천 썩의 이르러는 그곳의 부근 빅룡이랑 스름이 니스니, 일즉 한 썰을 두어시되, 직질이 비상하미 부피 익중하더니, 일일은 광풍이 덕작하며 썰이 간디 업는지라, 빅룡 부뵈 슬허하며 천금을 훗터 스방으로 차즈되 종적이 업는지라. 부뵈 슬허하며 말을 퍼 왈,

“아모라도 너 썰을 차즈주면, 가산을 반분하고 스회를 숨으이라.”

하거늘, 길동이 이 말을 듯고 심중의 측은하나 할일 업서 망당산의 가낙을 꾀며 드러가더니, 날이 저문지라 주저하더니, 문득 스름의 쇼리 늑며 등축이 도요하거늘, 그곳을 차즈가니 스름은 안니요, 미물이 안져 지저괴거늘, 원히 이 증상은 울동이란 증상이라, 여러 희를 묶어 변화 무궁하더라. 길동이 몸을 감초고 활노 쏘니, 그 중 괴쉬 마즌지라, 모든 쇼리 지르고 드라가거늘, 길동이 남게 의지하여 밤을 지닝고 두루 낚을 꾀더니, 문즉 괴물 슈삼 명이 길동을 보고 문왈,

“그딕는 무슨 일노 이 집흔 곳의 이르뇨?”

길동이 답왈,

“네 의술을 알미 이 산의 드러와 낚을 꾀더니, 그딕등을 맞나니 덕형하도다.”

그것시 덕회 왈,

“나는 이곳의 산 직 오리더니, 우리 왕이 부인을 식로 정하고 작야의 잔치하더니 천살을 막즈 위중하더라. 그딕 명의라 하니 선략으로 왕의 병을 곳치면 주상을 어드리라.”

하거늘, 길동이 혜오되 ‘이 놈이 작야의 승흔 놈이로다.’ 하고 허락하디 그거시 길동을 인도하여 문의 세우고 드러가더니, 이윽고 청하거늘, 길동 드러가 보니, 화각이 광녀흔 거온디 흉악흔 것시 누어 신음하드가 길동을 보고 몸을 거동하며 왈,

“복이 우연이 천살을 막즈 위태하더니, 시즈

의 말을 듣고 그뒤를 청하여시니, 이는 하늘이 살니미라. 그뒤는 직조를 앗기지 말나.”

길동이 스스르고 왈,

“몬져 너티홀 낙을 쓰고 버거 외치힐 낙을 쓰미 조홀ㄴ 호노라.”

그거시 응낙호거늘, 길동 낙양의 독낙을 너여 급히 운슈의 화하여 먹이니, 식경은 하여 혼 쇼리 지르고 죽는지라. 모든 요괴 일시의 드라들거늘, 길동이 신통을 너여 모든 요괴를 즈치든니, 문득 두 쇼년 너직 익걸 왈,

“첩등은 요괴 아니라 인조 스릅으로서 잡히여 왔스오니, 준명을 구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호쇼셔.”

길동이 빅농의 일을 싣각하여 거쥬을 무르니, 혼나흔 빅농의 쏘이요, 혼나흔 도철의 쏘이라. 길동이 요괴를 쇼청하고, 두 녀즈를 각각 제 부모를 츠즈 주니, 그 부피 디회하여 즉일의 홍싱 마즈 스회를 삼으니, 제일 빅쇼져요, 제이 도쇼져라. 길동이 일도의 낭쳐을 엇고 두 집 가권을 거느려 제도섬으로 가니, 모든 스릅이 반기며 치하호드라.

일일은 길동이 텃문을 보드가 놀나 눈물을 흘니거늘, 제인이 문왈,

“무슴 연고르 슬허허는뇨?”

길동이 툇왈,

“너 부모를 텃상 성신으로 안부를 짐작호더니, 건상을 붓즉 부친 병세 위증호신지라, 너몸이 원처의 잇서 맞지 못홀가 호노라.”

하니, 제인이 비감하여 호더라. 잇흔날 길동이 월봉산의 드러ㄴ 일장 디지을 엇고, 산역을 시작호되 석물을 국능과 갖치 허고, 일터 디션을 준비하여 도선국 서강 강변으로 디후호라 하고, 즉시 살발위승하여 일엽쇼선을 타고 도선으로 향호니라.

각셜, 홍판세 홀런 득병하여 위증호신지라, 부인과 인형을 불너 왈,

“너 죽으나 무한이로되 길동의 스싱을 으지 못하니 유한이라. 제 싣존호엿스면 츠즈을 거시니 적셔을 분변치 말고 제 어미를 디접호

라.”

호고 명이 진하니, 일기 망극하여 치상홀시, 산지를 구치 못하여 민망호더니, 일일은 문니 보호되,

“엇던 줌이 와 영위의 조문호려 호느이다.”

호거늘, 고히 여겨 드러오라 하니, 그 줌이 드러와 방성디곡하니 제인이 곡절을 몰나 면면상고호더라. 그 줌이 상인의게 일장 통곡호후 가로되,

“형장이 엇지 쇼제를 몰나보시느잇가?”

호거늘 상인이 즈셔히 보니, 이곳 길동이라. 붓들고 통곡 왈,

“현제냐, 그 사니 어디 가든뇨? 부공이 싱시의 유언이 곤절호시미, 엇지 인즈의 도리리요.”

호고, 손을 잇글고 너당의 드러ㄴ 모부인을 뵈옵고 춘낭을 상면홀시 일장통곡호후 문왈,

“네 엇지 줌이 되어 단니는뇨?”

길동이 디왈,

“쇼지 도선을 셔느 삭발위승하여 지술을 빅화든니, 이제 부친을 위하여 디지을 엇터든니, 모친은 물너호쇼셔.”

인형이 디회 왈,

“네 지죄 괴이호신지라, 길지 곳 어더스면 무슴 녀녀 잇스리요.”

호고, 명일 운구하여 제 모친을 드리고 서강 강변의 이르니, 길동의 지휘호 바 선척이 디후호신지라. 빅의 올라 살갓치 저허 혼 곳의 드드르니, 줌인이 슈십 선척을 디후호신지라. 셔로 반기며 호위하여 과니 거록하더라. 어언지간의 산상의 다다르니, 인형이 즈셔히 본즉 산세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너 탄복하더라. 산역을 맞치미 한가지로 길동의 처쇼로 도라오니, 빅시와 도시 존고와 속속을 마즈 뵈온 후, 인형 춘낭이 못너 길동의 지식을 탄복호더라. 산역을 맞치미 한가지로 길동의 처쇼로 도라오니, 춘낭이 길동의 장신희를 칭찬호더라.

여러 놀이 되미, 인형이 길동과 춘낭을 이

별하고 산쇼을 극진히 피시를 당부흔 후, 산쇼의 호직하고 발행하여 본국의 이르러, 모부인을 뵈은 후 전후슈말을 고흔디, 부인이 신기히 여기더라.

각셜, 길동이 제전을 극진히 밋드려 삼상을 맞이믹, 모든 영웅을 모화 무네을 이기며 농업을 힘쓰니, 병정약속흔지라. 남중의 울도국이란 나라이 있으니, 옥냐 슈천 니의 진짓 천부지국이라, 길동이 미양 유의흔든 비라, 제인을 불너 왈,

“너 이제 울도국을 치고져 호는니, 그디등은 진심하라.”

하고 즉일 진군홀식, 길동이 스스로 선봉이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을 스마, 정병 오만을 거느려 울도국 철봉산의 득드라 싸움을 도도니, 티슈 김현충이 난디없는 군미 이르를 보고 디경하여, 일변 왕의게 보고, 일지군을 거느려 니다라 싸호거늘, 길동이 므즈 싸화 일합의 김현충을 버히고 철봉을 었더, 빅성을 안무하고 덩철노 철봉을 직회오고, 디군을 휘동하여 브로 도성을 칠식 격서를 울도국의 보디니 하여스되,

“의병장 홍길동은 글월을 울도왕의게 부치느니, 디저 님군은 혼 스람의 님군이 아니요, 텃하 사름의 님군이라. 너 텃명을 밋드 기병허미 몬져 철봉을 파하고 물미쫓 드러오니, 왕은 싸호고져 호거든 싸호고, 불연즉 일즉 항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하여더라. 왕이 남필의 디경 왈,

“아국이 전혀 철봉을 밋거늘, 이제 일허스니 엇지 저듯하리요.”

하고 제신을 거나려 행복하니, 길동이 성중의 드러나 빅성을 안무하고 왕위의 즉한 후, 울도왕으로 의령군을 봉하고 마숙 최철노 좌우상 삼고 기여 제장은 다 각각 봉작흔 후, 만조빅관이 천세을 불너 하례하더라. 왕이 치국 삼년의 산무도적하고 도불습유하니 가의 티평세계러라. 왕 “너 조선 성상게 표문을 올니려 호는니, 경은 슈고을 앓기지 말나.”

하고, 표문과 서찰을 홍부의 붓치니라. 빅봉이 도선의 득달하여 몬져 표문을 올닌되, 상이 표문을 보시고 디찬 왈,

이 빅봉을 불너 왈,

“홍길동은 진짓 기지로다.”

하시고, 홍인형으로 위유스를 호이스 유서를 느리오시니, 인형이 스은흔 후 도라와 모부인기 년중설화를 고흔디, 부인이 쏘한 그려호거늘, 인형이 므지 못하여 부인을 피시고 발행하여 여러 날만의 울도국의 이르니, 왕이 맛즈와 향안을 비설하고 유서를 밋즈은 후 모부인과 인형으로 반기며, 산쇼의 쇼분흔 후 디연을 비설하여 즐기더라. 여러 놀이 되미유시 홀런 득병하여 졸하니, 선능의 중장하고, 인형이 왕을 하직고 본국의 도라 봉명하온디, 상이 그 모상 당흔를 위유하시더라.

츠셜, 울도왕이 삼승을 맞이믹 디비 이어기세하미, 선능의 안장흔 후 삼상을 마치믹, 왕이 습즈이녀을 싱하니, 당자 츠즈는 빅시쇼싱이요, 삼즈 칩녀는 도씨 쇼싱이라. 장즈현으로 세즈을 봉하고, 기여는 다 봉군하니라. 왕이 치국 삼십년의 홀런 득병하여 봉하니 쉬칠십이세라. 왕비 이어 봉하미 선능의 안장흔 후, 세지 즉위하여 디디로 계계승승하여 타평으로 누리더라.